

2021년 겨울호 vol.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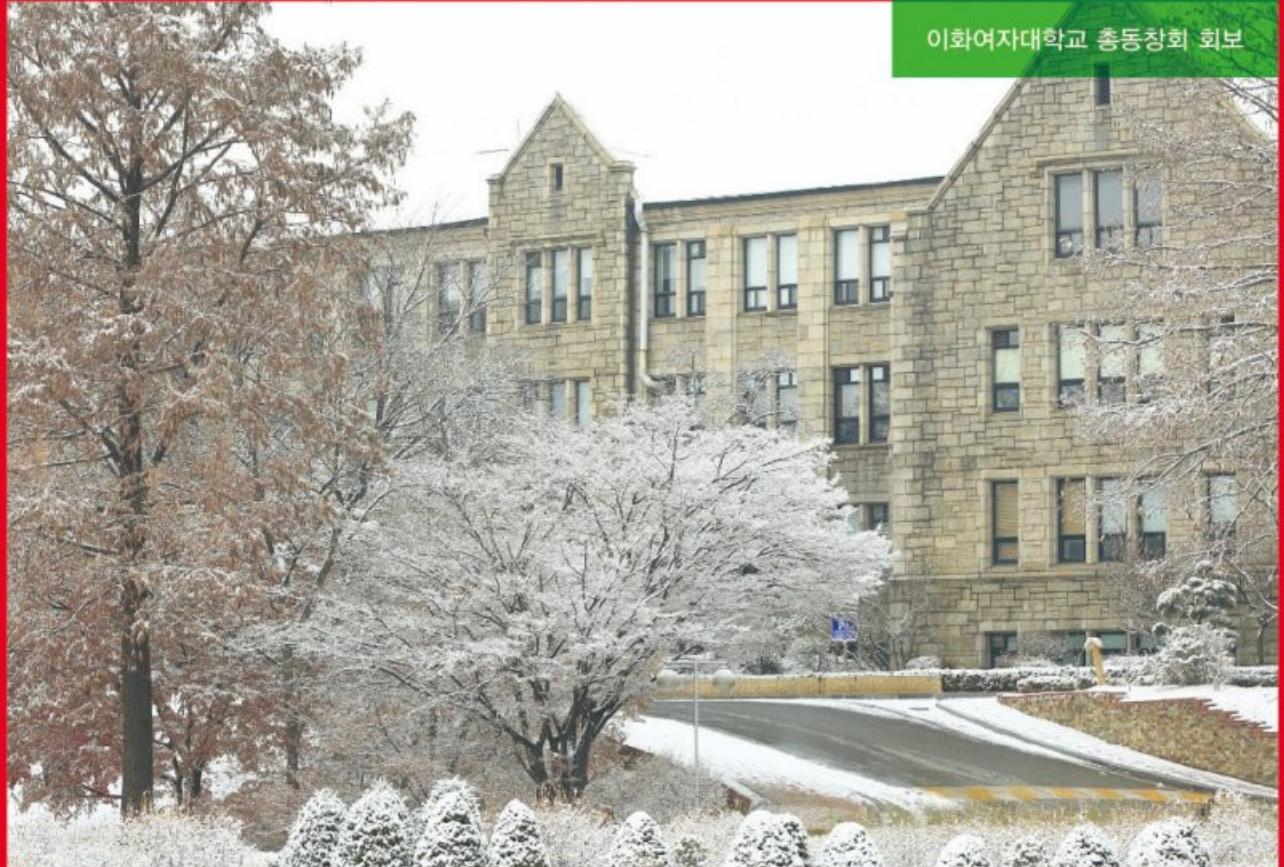
이화 동창

2021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 개최

2021 이화 가족 성탄 예배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모임/올해의 이화인 1기 인터뷰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동창



표지사진
황규호(보고 교육학과 교수)
눈꽃 편 악학관(2021년)

편집위원

남상택(달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달리 88,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허윤선(정의 89, 편집위원)

발행 2022년 1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2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이화 동산에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03 '2021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

동창들의 나눔과 섬김, 이화를 최고로 이끄는
견고하고 크나큰 힘이 될 것

06 2021 이화가족 성탄예배

경계를 넘어 하나되는 이화인,
평화의 사도가 되는 이화인

08 '올해의 이화인(이을) 연합회' 개최

150여 명 온라인으로 모여
회장단 선임 및 운영 계획 발표

11 '올해의 이화인' 1기 동창을 소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임했던 우리

14 2021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 /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이화인이여, 깨어나라, 밝게 빛나라

17 이화의 기도처 순례

다락방전도협회 기도실

19 축하합니다

정연희 동창 외

21 만나고 싶었습니다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 김홍희 동창

25 이화인 모임 탈방

이화보육인회

28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주)샘표식품 마케팅본부 총괄본부장 서동순 동창

32 총동창회 소식

대바자회 평가와 연말 행사 안내 외

34 선교부 소식

퇴임 앞둔 신은경 교수 모교 채플에 서다 외

39 모교 소식

미래 이화를 견인할 'Ewha Frontier 10-10 사업' 추진 외

43 대학(원) 소식 음악대학 외

46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50 지회 소식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외

57 동창 균황 이경순·조기주 동창 외

68 동창이 피낸 새 책

『청계 이영인 작품집』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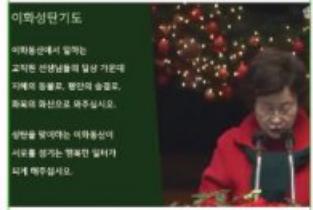
69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69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71 연회비 납부자 명단



03



06



08



11



14



17



21



이화 동산에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거룩한 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모아 성탄 예배 드리는 이화 가족에게 은총 내려주십시오.
135년 이화 동산에 내려주신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이화 가족은 언제 어디서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유와 공명심, 사심과 의로움,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빛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빛 마음은 이화의 처음 사랑,
이 땅 여성과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저희 빛 마음이 절망과 고통 많은 세상에 오시는
희망동이 아기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빛 구유 되게 해주십시오.
높고 화려한 곳, 강하고 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비천하고 비루한 곳에 스스로를 낮추어 오시는 주님,
저희로 그 거룩한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화 가족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 예비하는
구원의 산파 노릇 충실히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불투명한 미래 앞에 좌절하는 이화 학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희망의 빛으로 와주십시오.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 가는 데 더욱 용기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 동창들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로 와주십시오.
폭력과 억압과 차별 아래 울부짖는 세상 모든 여성들을 위해 기도로써 연대하게 해주십시오.
동창들의 손과 발에 사랑의 불씨로 와주셔서.
이화 동창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의 돋는 손길과 발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화 동산에서 일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일상 가운데
지혜의 등불로, 평안의 숨결로, 화목의 화신으로 와주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 동산이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 동산에 하늘 은총 가득하기를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 가득하기를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창들의 나눔과 섬김, 이화를 최고로 이끄는 견고하고 크나큰 힘이 될 것



총동창회는 2021년 11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총동창회 고문 및 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를 열었다.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와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제14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과 모교발전기금 1억 원을 모교 김은미 총장에게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2021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매년 11월 마지막주 월요일 이화 동창들이 모여 송년 잔치를 벌이는 '이화인의 밤' 행사 대신, 각 과 동창회와 대학(원) 동창회에 후원 티켓(1,600장 발매)을 판매한 기부금을 모아 모교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후원 티켓을 구매한 이화 동창들에게 총동창회는 감사카드, 에메랄드빛 브로치, 성탄 타월(흰색과 붉은색 또는 흰색과 초록색), 이화동창수첩, 총동창회 달력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브로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큰 인기를 얻어 국내에는 물론 해외 동창들의 추가 주문이 이어졌다.



눈 내리는 모교 대강당의 모습을 따뜻하게 표현한 '오티스타'의 그림으로 행사를 장식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은미 모교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총동창회도 코로나 일상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총동창회 연말 주요 행사인 ‘이화인의 밤’ 행사를 대면으로 열지 못하고 화상으로 봄게 되어 송구스럽고 매우 아쉽다”고 운을 띠운 뒤 “그럼에도 총동창회는 온라인 화상 행사를 통해 많은 동창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채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동창들은 이를 통해 팬데믹을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

도 우정과 믿음, 이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자랑스러운 동창들을 키운 모교를 응원하는 뜻으로 동창들의 마음을 함께 모은 기금을 모교에 전달한다”며 “동창들의 나눔과 섬김은 모교 이화를 진정한 의미의 최고로 이끄는 견고하고 크나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맺었다.

제14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인 고(故) 심현숙(사복 62) 동창은 전 생애를 통해 국내외 어린이 복지와 인권 보호, 한인 입양아 지원 사업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국제 사회에서 현신함으로써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다. 지난 11월 5일(금) 소천한 고 심현숙 동창을 대신해 사회복지학과 동창회장 한인영(사복 72) 동창이 대리 수상했다.

한인영 동창은 대리 수상 소감을 통해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그동안 받은 수많은 상 중에서도 심현숙 선생님께 가장 어울리는 상”이라며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혈신하다 좀 쉬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평안



‘2021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모교발전기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고 심현숙 동창의 ‘아름다운 이화인’ 상을 대리 수상한 한인영 동창



국악 크로스오버 팀 ‘온도’의 축하 공연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선물 세트

을 누리십시오. 그동안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라는 인사로 소감을 대신했다.

이어 김은미 총장의 모교소식이 있었다. 김은미 총장은 모교가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시한 〈Ewha Vision 2030+〉 발전계획에 대해 소개하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동창들의 후원이 있었다”며 “이 모든 것에는 동창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지원이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는 모교 출신의 국악 크로스오버 팀 ‘온도’의 축하 공연도 준비되었다. 서민경(대금, 한음 19)·김아영(보컬, 한음 19)·강미주(피아노, 작곡과 재학 중)로 이루어진 ‘온도’는 〈Winter Wonderland〉와 〈홀로 아리랑〉을 구성진 가락으로 연주 및 열창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광고와 임원들의 교가 제창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총동창회 임원들은 3~4명 짹을 지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장식된 포토존 앞에서 동창들에게 전하는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를 촬영하였다. 포토존을 장식한 현수막은 특수교육과 교수 이소현(특교 83) 동창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오토스타의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눈 내리는 모교 대강당의 모습을 따뜻하고 밝게 표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미 모교 총장과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이경숙·김영주 총동창회 고문, 이명경·조미숙 총동창회 부회장, 임진 이올 연합회 회장, 신경희 감사, 각 대학 회장 및 부장 등 총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촬영한 행사 영상과 총동창회 임원들의 모교 응원 메시지 영상은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bit.ly/ewhaalu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공간을 꾸미고 이화를 응원한 임원진들



이화여대 총동창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bit.ly/ewhaalum)

경계를 넘어 하나되는 이화인, 평화의 사도가 되는 이화인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3시, 총동창회 선교부와 교목실 주최로 이화가족 성탄예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1988년 12월 1일에 열린 제1회 ‘이화 동창 성탄의 밤’ 예배가 1996년 12월부터 ‘이화가족 성탄예배’로 바뀐 뒤, 현재는 이대부속유치원생부터 모교 재학생, 교직원, 동창들까지 이화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시간, 김희성 교수의 은은한 오르간 반주로 안선희 교목실장이 성탄예배 시작을 선포하였다. 김동근 교수는 <오랫동안 기다리던(찬송가 105장)>을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시몬과 같은 고백으로,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심을 선포하며 개회 찬송으로 올렸다. 박희규 교수, 배성아 직원, 손지현 재학생, 김경옥(국문 84) 동창 선교사의 성탄 기도와 노래

선교단 강서연(성악 21) 동창의 기도송이 조용히 어우러졌고,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마2:9~11, 동방박사의 예물 드리는 장면에 대한 말씀 봉독에 이어 음대 한나형(성악 96) 동창이 김주희(대학원 재학 중) 재학생의 반주로 <오 거룩한 밤> 찬양을 드렸다.

안선희 교목실장은 ‘어떤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세계화된 시대에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이권을 위해 많은 경계선을 긋고 있지만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어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넘나들며 담을 허무는 평화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며, 갈라진 것들을 이으시고 분열을 화해시키는 하나 됨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서’ 아기 예수의 초대로 경계선을 지우고 그 선을 넘나드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화의 처음 선생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여성 교육을 한 것은 인종 차별과 남녀유별의 경계선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우

음대 합창단의 <썰매 타기> 공연(원쪽)과 한국음악과의 국악 캐풀 공연



썰매 타기





김은미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안선희 교목실장(왼쪽부터)

리도 경계선 안에서 누리는 평온함에 안주하지 않고 익숙한 경험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번거롭고 낯설더라도 경계선 밖의 타자를 인정하고 맞아들입니다.”

이어진 ‘캐롤의 축제’ 시간, 원영석 교수의 지도로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국악기로 다양한 캐롤을 연주하였다. 서양적인 음악을 우리 전통 가락으로 듣는 색다른 미묘를 느끼게 해주었다.

선교사들이 소개되었고 ‘한 알의 밀알이 세계 곳곳에 푸른 의의 나무들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가 있었다.

김은미 총장은 감사 인사 중에, “사랑의 실천을 통해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따라, 빛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 평화를 오게 하심을 실천하는 삶이 되자”고 말했다.



이화 선교 정신의 산 증인 이화스렁학교 소개

다음은 1886년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은 선교 영상을 보며 현금을 올렸다.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여기서 모은 현금을 140여 명의 동창 선교사들의 성탄 선물로 보낼 것이다. 이어 이화의 선교 역사와 함께 그 사랑을 흘려 보낸 킬링필드의 역사를 가진 캄보디아에 뿐만 아니라 창립 12주년을 앞둔 이화스렁학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교육과 선교를 위해 선교지에서 애쓰는 많은

음대 합창단의 <썰매 타기> 축가는 활기를 더하는 박신화 음대 학장의 춤추는 지휘로 연주되었다. 검정 마스크로 입을 가려 찬양의 예쁜 입 모양을 보지 못하는 게 아쉬웠지만 새처럼 날아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려 달려가는 썰매를 타고 가는 느낌이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을 이인영(문정 00) 도서관 직원과 건축팀 홍성기 직원이 선창했고, 안선희 교목실장은 ‘성탄의 신비를 미리 맛보며 평화의 사도가 되려는 이화의 모든 가족들과 24만 이화 동창들의 복된 대림 성탄절기가 되기를 축원’ 하였다.

조용하게 진행된 비대면 성탄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2022년에는 이화가족들이 모두 모여 부디 이화 강당을 가득 메우고 기쁨과 행복 넘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글·안영주(유교 88, 유교과 선교부장)



150여 명 온라인으로 모여 회장단 선임 및 운영 계획 발표



총동창회는 2021년 10월 23일(토) 오전 11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올해의 이화인(이올) 연합회’ 행사를 비대면 줌(Zoom)으로 개최하였다. 행사는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최정숙(국문 59) 1기 ‘올해의 이화인’의 인사말,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초대 회장 및 신규 임원진 소개, 내규 발표와 안건 토의, 사업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동창회는 1991년부터 매년 모교 창립 기념일에 ‘올해의 이화인’ 추대 행사를 가져왔다. 각 과 동창회에서 가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이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화인을 한 명씩 총동창회에 추천하였고, 총동창회는 30년간 1기(1959년 졸업자)부터 31기(1991년 졸업자)까지 1,300여 명의 동창을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하였다.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두 눈을 환히 열어 주시길” 청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019년에 이어 2년 만에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고 한 뒤,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해 온 ‘올해의 이화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대된 1,300여 명의 ‘올해의 이화인’을 모아 연합회를 만들어 선 후배 사이에 유대감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이화인 활동을 이어 나아가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총동창회 행사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019년 첫 모임을 갖고,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갖지 못했지만,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를 지속하고



남상태 총동창회장



임진 이율 연합회 회장

체계를 만들어 유지하고자 비대면 회의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크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름다운 가을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찍은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온 1기 ‘올해의 이화인’ 최정숙 동창은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것은 시절 탓이라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으나 이화의 궁지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교양과 학문을 습득한 이화인이다. 이 모임의 뜻과 취지를 잘 살펴서 모두가 더 발전되고 의미 있는 열매 맺기에 힘을 모아, 품위 있고 아름다운 이화인이 되길 바란다”라고 축원하였다.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임진 회장 선임

곧이어 남상태 총동창회장이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임진(작곡 72, 2002년 올해의 이화인) 현 총동창회 감사를 선임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간절한 바람과 기대 속에서 3년 임기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임진 회장은 연단에 올라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초대 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서게 되어 걱정이 앞서지만 열성적인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임원들 및 1,300여 명의 ‘올해의 이화인’과 함께 이뤄나간다 생각하니 힘이 난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또한 “남상태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진의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에 힘입어 2021년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임 회장은 “총동창회의 산하 단체로, 명실상부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로 자리매김하며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친목과 동창회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임진 회장이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임원진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다.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임원진 13명은 연단에 올라 줌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하였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힘찬 박수로 응원하였다.

다음 순서는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총무인 최은영(물리 87) 동창이 사회를 맡아 축하 공연을 알렸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D. Shostakovich Waltz No.2〉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두 곡을 들려주었다. 바이올린 류예행(관현 88)·비올라 이지연(관현 90)·피아노 김진우(피아노 88) 동창의 삼중주를 감상하며 이화의 향기 속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가 되길 바라는 소망을 되새겼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연주자들의 축하 공연



총동창회 산하 단체로, 지역사회와 환경보호 등 가치 있는 일들 할 것

다음으로 안건 토의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최은영 총무가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내규’를 낭독하였다. 회원은 내규 준수와 회비 부담 의무를 짐에 따라 의견 수렴을 거쳐 연회비를 결정했다. 운영 방안에 대해 임진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회장은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이울인)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김곡미 사업부장이 PPT 자료를 보여 주며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먼저 2019년 10월 22일 ECC 이삼봉홀에서 1기 ‘올해의 이화인’ 3명을 비롯해 180여 명의 이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던 제1회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의 자료 화면을 보여 주며 첫 마음을 환기시켰다. 김 부장은 문화 공연 관람과 문화 기행과 같이 선후배가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르모니아 합창단’ 등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특강과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와 환경보호 활동 등 가치 있는 일을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기대감을 갖게 했다.



줌으로 참석한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회원들

제2회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개최를 위해 총동창회 임원진과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실행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모임을 준비하였다. 이날 줌 회의에서 음향이 다소 고르지 못했지만 임원들은 채팅창에서 회의 안전과 요지를 실시간으로 올려 회원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회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을 한 후 임진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참석자들은 섬김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되새기며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가 더욱 발전하기 소망하였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임원진(2021)



구분	성명	해당 연도	학과
회장	임진	2002	작곡
부회장	신난식	2003	성악
부회장	이정화	2004	독문
부회장	박신정	2015	조소
부회장	박상금	2017	행정
총무	최은영	2017	물리
부총무	안성희	2018	국문
회계	권미경	2017	교공
서기	복승숙	2021	독문
사업부장	김곡미	2017	생미
사업부	김주현	2020	사복
사업부	서민아	2021	물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임했던 우리

매년 5월, 분홍 치마에 분홍빛이 도는 흰색 저고리를 곱게 입은 50여 명의 '올해의 이화인'은 동창의 날 기념식의 주인공이 된다. 화려한 디자인이 아닌 간소하면서도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동창의 날 기념식을 빛내는 '올해의 이화인'은 1991년부터 총동창회 주관으로 열리는 동창의 날 기념식에 초대되고 있다. 졸업 30주년을 맞는 동창 중 각 과에서 1명씩 모두 50여 명이 매년 추대되며, 2019년에는 1기부터 29기 '올해의 이화인'이 선후배 간 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화의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첫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를 갖기도 했다.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실천하는 '올해의 이화인' 중 1기 회장인 최정숙(국문 59) 동창과 김명애(체육 59)·박인숙(법학 59)·윤미덕(영문 59)·전길희(사학 59) 동창을 소개한다.

1959년 동창 대표 1기 '올해의 이화인'은 19개 학과에서 19명이 선정되었다. 1기 이울인들은 코로나19로 최근 2년은 중단한 상태지만 계속 모임을 해왔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동창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5명의 동창이 1년에 네 차례 만난다.

전공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다

김명애 동창은 50명의 학생과 함께 체육과에 입학하여 무용을 전공했다. 한국전쟁을 치른 직후고, 많은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졸업 작품은 10명이 했다. 이 졸업 작품은 당시 대한뉴스에도 나왔다. 졸업 직후 결혼한 김 동창은 육아에 전념하다

가 서예는 일중 김충현, 한국화는 청강 김영기를 사사하였다. 중국 근대 서화의 대가 치바이스를 사사한 청강과 함께 중국에서 작품 전시회를 했고, 국전에서 한문 서예로 입선했다.

"4남 2녀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생겨 서예와 한국화를 시작했어요. 덩샤오핑 아들의 초청으로 청강의 인솔하에 우리나라와 국교가 수립되기 전인 50여 년 전에 중국을 갔지요. 중국의 대가들을 만나고 주최 측이 마련한 중국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서예와 한국화 작품 활동 외에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1기 '올해의 이화인'이 되니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고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1958년 법학과 쿤이었던 박인숙 동창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이태영 변호사의 부름을 받아 여성법률상담소(현재 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에서 일했다. "요일별로 무료 법률상담 해주던 다섯 분의 변호사가 계셨지만, 여성법률상담소에 상주한 것은 이태영 박사와 저 둘뿐이었어요. 요즘은 법률적인 보호 장치도 많고 쉼터 같은 보호 시설도 있지만, 당시에는 돈 한 푼 없이 시집에서 쫓겨난 여성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지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없이 이혼하게 된 여성들이 여성법률상담소에 오면, 이태영 박사께서 딱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남편들에게 여성법률상담소로 오라고 편지를 보내셨지만, 출두 명령도 아니다 보니 남편들이 오지 않았고 여성들은 와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는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여성들이 여성법률상담소를 찾아오는 것조차 쉽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이태영 박사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린 나이에 인생이나 결혼 생활도 잘 알지 못하면서 철없이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화 덕을 본 것이 더 많았고 이화를 위해 한 일이 없는데 ‘올해의 이화인’이 되어 감사할 뿐이라는 박인숙 동창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면서 타인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한다.

윤미덕 동창은 영문학과 졸업 후 모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Queens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공부한 후, 이화여대와 고려대학교에서 강사를 했고, 성신여대 교수로 28년 동안 재직했다. “정신없이 사회생활하던 중에 1기 ‘올해의 이화인’이 되었어요. 이화에서는 한 일이 별로 없고 성신여대에서 저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하고 명예롭게 생각해요.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지요. 제 환갑 때도 제자들이 찾아와 축하를 해줬고, 지금도 연락을 계속하며 찾아오기도 하지요.”

사학도, 한국의 외식산업을 이끌다

전길희 동창은 사학과 1회 졸업생이면서 사학과 1회 조교였다. 미국에서 결혼 후 자녀들이 커가면서 전 동창은 미국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호텔·외식 경영을 공부하고 1984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급식경영학을 강의하면서 알렌관 초대 관장으로 알렌관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1987년에는 YWCA에 우리나라 최초로 외식경영 강좌를 개설했고,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에 외식 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음식업의 위상을 높였다.



1991년 ‘올해의 이화인’들의 모습

위탁급식업체 이사와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단체 급식 시스템 변화를 이끌었고, ‘클럽 심포지아’ 모임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대사들을 초빙하여 외국 식문화를 익히고 한국 식문화도 소개하는 활동을 20여 년간 해왔다.

“귀국해서 외식경영 관련 강의를 대학교에서 하겠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대학에서 가르칠 것이냐는 문교부의 답변이 있었지요. 하지만 88올림픽을 앞두고 전세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할 식사 관련 서비스와 위생이 엉망인 상태여서 제가 YWCA 강좌를 열어 가르쳤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1년간 고정으로 나가서 외식산업경영 합리화에 대한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중앙대학교에서 외식 경영자과정을 1년 코스로 강의하면서는 메뉴 조정, 메뉴 프린트, 가격 조정, 위생 체크리스트, 서비스 직원 교육 등 디테일하게 가르쳤어요. 당시에 강의를 들은 분들 말씀이, 10년 배울 것을 1년 만에 다 배워서 남들보다 10년 앞서서 실행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한 외식 경영자들이 여럿이에요. 대형 음식업 경영자와 교육계 인사들이 회원인 ‘클럽 심포지아’에서는 각국 대사관 관련 100명을 초대해서 각종 산나물과 김치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신선한 재료로 파티를 했고, 오신 손님들이 모든 면에서 감탄했던 것이



김명애 동창

박인숙 동창

왼쪽부터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윤미덕·최정숙 동창, 김순영 전 고문

기억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기 '올해의 이화인'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했던 일이에요. 일하면서 정신없이 지냈는데 이화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전 동창은 지금도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고급화를 통한 해외 진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밑거름이 될 것

최정숙 회장은 졸업 10년 후부터 코로나19 이전 까지 국문과 동창들과 매달 모임을 해왔다. 평소 많은 여행을 한 최 동창의 여행담에 동창들이 함께 여행하기를 원해서 최 동창이 리더가 되어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국내 여행도 함께하는 모임이다. 또한 모임 동창 중 기독교 신자 10명이 모여 매주 성경 공부를 해왔다. 지금도 손편지를 즐겨 쓰는 수필가 최 회장은 1기 '올해의 이화인' 모임에서도 회장을 맡아 모임을 이끌고 있다.

"김활란 총장님 시절, 채플 시간에 신자가 된 친구들도 있었지요. 당시에는 대강당에서 점심시간에 채플이 있었는데 총장님의 유명한 분들을 모셔 와서 강연을 듣는 등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김활란 총장님은 기독교 정신이 철두철미하고 매사에 모범이 되어 우리가 우러러봤어요. 졸업하고

30여 년이 지나 그 대강당에서 1기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니, 궁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고 축복받은 일이라 생각되어 가슴이 뿌듯했죠. 연분홍 저고리에 진한 자주색 치마를 입고 리허설을 했는데, 무용과 김매자 선생님이 한복 고유의 멋을 살려야 한다면서 귀걸이나 목걸이 등 장신구를 못하게 했고, 걸음걸이까지 연습했을 정도로 학교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했고요.

당시 선정된 19명 중 국외 거주자 등 참석이 어려운 분들 외에는 모임을 계속해 왔고 미술과 동창이 디자인해서 단체로 제작한 모임 반지를 끼고 모이는 소소한 재미도 있지만 1기로서 책임감도 느껴요. 이제는 매일 신문 열심히 보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쓰거나 전화통화하면서 지내요. 집에 항상 우표와 엽서를 넉넉하게 사두고, 계절이 바뀔 때의 감동 등을 함께 하고픈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으면서 편지를 받을 친구가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행복해 하지요.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가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더 나은 미래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인이여, 깨어나라, 밝게 빛나라



이번 총회의 주제인 'Rise & Shine'과 어울리는 환한 얼굴의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났다

2021년도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회 주최로 2021년 11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3박 4일의 일정 동안 'Rise & Shine'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이화인 실시간 참석
먼저 영상 총회를 개최하면서 준비할 것이 많았다. 작년과 같이 지회장 미팅, 정기 이사회, 정기 총회는 실시간 줌 미팅으로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에는 대면 총회의 Banquet Program 구성과 같이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의 환영사, 기도, 교가 제창, 총장과 총동창회장의 축사, 모교 홍보 영상 및 대외협력처 소식, 국제재단 장학금 보고,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의 이화 합창, 차기 개최지 소개 및 북미주지회연합회 깃발 전달식을 순서로 한 총회 메인 이벤트(대면 총회의 Banquet Program) 영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각 지회장들의 지회 보고와 텔런트쇼 영상은 별도로 만들어 올리

기로 했다. 또한 대면 총회였다면 가능했을 시내 관광 기회를 가질 수 없음이 아쉬워 '디트로이트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관광지 소개 영상을 제작하였다. 2021년 3월, 모교 17대 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은미 총장과 동창으로서의 친밀감을 높이고, 앞으로 4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모교 발전을 위한 계획과 의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장님과의 인터뷰'라는 Q&A 영상도 기획하였다.

기획안에 맞춰 제작된 교가 영상은 이화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된 모습을 북미주 동창들의 학창 시절 교정 사진으로 나타내어, 과거 그 시절을 추억하며 시대별로 변모한 이화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했다. 합창 영상을 위해서는 이번 총회의 주제인 'Rise & Shine'과 어울리는 가사의 <Butterfly(영화 <국가대표> 주제가)>를 선정했다. 당시 북미주는 여름철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거리 두기 방침이 완화되어서 각 지회에서는 오랜만에

야외에서 모임을 갖고 촬영할 수 있어 동창들의 즐거움과 정겨움이 고스란히 묻어난 귀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냈다. 디트로이트 지회는 이러한 동창들의 수고와 동창회를 위한 애정으로 오래 준비한 끝에 11월 4일(목) 지회장 미팅과 정기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동창들의 빛나는 역량과 다양한 경험, 세상에 베풀 수 있기를

지회장 미팅에서는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과 북미주지회연합회 지회장 총 22명이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향후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기 이사회에는 총동창회 임원 및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 등 56명이 참석하여, 올해 임기를 마치는 이정열(조소 11, 시애틀) 고문과 김영례(심리 79, 애틀랜타) 제2서기의 퇴임 인사와 그간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년도 회의록 낭독, 북텍사스(댈러스) 지회의 2020년도 총회 회계보고와 2022년도 개최 예정지 남가주(LA) 지회의 예산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사회 안건 제출과 의결 절차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었다. 신임 제2서기로 최혜영(생미 86, 세인트루이스) 동창이 선출되었으며, 향후 3년간의 총회 개최지(2022년-남가주, 2023년-보스톤, 2024년-북가주)가 발표되었다.

2일차인 11월 5일(금)에는 총회 메인 이벤트와 지회 소식, 텔런트쇼, 디트로이트 City Tour, 총장님과의 인터뷰 등 총 5개의 영상을 북미주지회연합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였다. 메인 이벤트 영상에서 모교 김은미 총장은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Ewha Vision 2030+〉 발전 전략을 동창들과

공유하면서, 이화가 AI를 포함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과 문명과 관련한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역설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교 이화가 135년의 역사를 굳건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동창들이 명성이나 명예보다는 소명과 실천을 우선했기에 가능했다”며, “동창 한 분 한 분이 이화 정신을 계승하고 여러분의 빛나는 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쓸 수 있기 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이화국제재단의 Mark Mullinax 이사장은 “2022년 이화여대에 지원할 금액이 \$1,010,500로서 100만 달러가 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정기 총회는 11월 6일(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진행하였다. 해가 갈수록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창들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여 평일보다는 주말 저녁 시간에 총회를 열었는데, 작년보다도 28% 늘어난 206명이 참석하여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국에서는 주일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임원진, 모교 대외협력처 이해선 처장을 비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은미 모교 총장



Mark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



황수영 북지연 회장



해가 갈수록 색다른 아이디어로 동창들에게 즐거움을 준 텔런트쇼 참가자들. ①남가주(LA), ②디트로이트, ③워싱턴DC, ④뉴욕, ⑤북가주(샌프란시스코), ⑥애틀랜타, ⑦북텍사스(댈러스), ⑧토론토 지회 회원들, ⑨이번 총회를 준비한 디트로이트 지회 회원들

롯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함께해 주었고, 바쁜 출장 일정 중에 짧은 시간이나마 참석하여 인사한 김은미 총장과 함께 이화인으로서의 동질감과 모교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11월 7일(일)에는 김은미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대외협력처장, 23명의 지회장, 발전위원회 위원 10명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이 텔런트쇼에 참가한 8개 지회(애틀랜타, 북가주, 남가주, 디트로이트, 뉴욕, 북텍사스, 토론토, 워싱턴DC)의 영상을 심사하였다. 각 지회의 단합력과 장기를 뽐내는 자리인 텔런트쇼는 해를 거듭할 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로 동창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작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토론토 지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1등은 남가주, 2등은 뉴욕과 워싱턴DC 지회가 공동 수상하였다.

끊임없는 회의와 아이디어로 총회 무사히 마무리

디트로이트 지회 동창들은 제한된 인원과 능력

으로 인해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2021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영상 총회 개최'라는 숙제를 안고 생전 처음 접하는 신문물을 사용해야 했고, 좀 더 많은 동창이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짜내었다. 그 결과 유튜브 영상 조회수와 정기 총회 참가자 수가 매우 높았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어 기쁘다.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총회 개최를 가능케 한 디트로이트 지회 이사와 임원진, 최전방 일선에서 요청 사항을 다 준비한 지회장, 총동창회와 모교 대외협력처 및 관련 부서 여러분, 이화국제재단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영상 총회의 영상들은 유튜브 공식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Hsuc8rE5hGVh39Z3xG9TWg>)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황수영(화학 89,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기도하고, 전도하라, 이화의 기독 운동이 시작된 곳



“이곳은 첫째, 기도하는 곳입니다. 둘째, 전도하는 곳입니다.”

모교 총장을 지낸 김활란 선생은 1960년 4월 국내외 선교단체 다락방전도협회를 창립하고 1대 회장을 지내면서 이곳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했다. 다락방전도협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이를 맞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 이래 모교의 부속기관으로 45년간 국내외 선교 활동을 해오다가 2008년 9월부터 교목실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다락방전도협회는, 현재 모교 기독 동아리 및 대학부 학생들의 모임과 활동을 후원하고 선교 봉사 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총동창회 선교부의 든든한 터전이 되어 주고 있는데, 선교부는 매주 화요일 오전 이곳에 모여 이화의 학원 선교와 전 세계에 파송된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후문을 나와 서문 쪽을 향해 걷다 보면 벽면에 아로새긴 단정한십자가가 인상적인 하얀 돌집과 만날 수 있다. 돌로 쌓은 낮은 올타리 너머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 몇 그루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삐걱이는 나무 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마저 아득한 느낌을 주는 오래된 건물이다. 이화 기독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으며, 선교하는 동창들의 발걸음마다 거름이 되어 이화의 신앙을 지켜 주는 다락방전도협회는 작지만 다부지며, 모성의 공간처럼 찾는 이를 따스하게 품어 준다.

좁은 로비를 지나 1층에는 총동창회 선교부가 기도 모임을





갖는 약 80석의 애찬실이 있고, 2층은 선교실, 교육봉사, 미래캠프 등의 교육 봉사용 공간이 있으며, 3층은 약 120석의 예배실로 꾸며져 있다.

이 공간이 화려한 치장이 없어도 빛나고 위엄이 느껴지는 이유는,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총동창회 선교부의 조용한 봉사, 동창 선교사들의 희생이 어우러진 곳이기 때문이다. 다락방전도협회의 2대 회장인 김옥길 선생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씀대로 다락방전도협회 회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내외에 전하고 있다. 다락방전도협회는 이화 기독 운동의 산실이며 기적의 공간이라 불릴 만하다.



글과 사진·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정연희(국문 58) 동창

'제24회 이화문학상' 수상

소설가 정연희 동창이 소설집『땅끝의 달』로 '제24회 이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4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루스홀에서 열렸다. 정연희 동창은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파류상」으로 당선되었으며, 대한민국 문학상과 윤동주문학상 등을 받은 바 있다. 저서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화진』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이배용(사학 69) 동창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

전 모교 총장 이배용 동창이 2021년 10월 18일(월)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경북 영주시가 2019년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선비대상'은 선비 정신 선양과 구현, 실천 등에 큰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이배용 동창은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기여하여 한국 고유의 선비 정신을 세계에 알렸으며, 2021년에는 전통 한지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장을 맡아 전통 한지의 진흥과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필화(영문 74) 동창

'삼성행복대상' 수상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장필화 동창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최하는 '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삼성행복대상'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한 여성 및 단체, 효 실천 또는 효 확산에 기여한 개인·가족·청소년을 발굴하고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021년 11월 8일(월) 서울 한남동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장필화 동창은 1984년 국내 첫 여성학과인 모교 여성학과 교수로 부임해 재직하면서 국내 100여 개 대학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등 30여 년간 한국 여성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윤경혜(정외 87) 동창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브랜드 컨설팅 기업 '눈이부시게' 대표 윤경혜 동창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 6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 여성가족부장관상

관표창 전수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다. 윤경혜 동창은 30여 년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윤경혜 동창은 2007년에는 중앙일보 '자랑스런 중앙인'상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이화언론인클럽 '제9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을 받는 등 다양한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다. JTBC플러스 엔터트렌드부문 트렌드총괄과 JTBC플러스 고문을 맡은 바 있다.

손지영(약학 91) 동창

모더나 한국법인 대표 선임



손지영 동창이 2021년 5월 설립된 모더나의 한국법인 모더나 코리아의 첫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손지영 동창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의약품 마케팅 전문가로, 한국화이자에서 초대 스페셜티 사업부서 총괄 디렉터를 맡은 바 있으며, 한국로슈의 항암제 부서장으로 항암제 비즈니스의 높은 성장과 직원 계발을 이끌었다. 최근까지 씨에스엘베링(CSLBehring)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한국법인 설립과 신제품 출시를 지휘했다.

이영희(법학 94) 동창

법무법인 바른의 경영 담당 대표변호사로 선출



2021년 9월 27일(월) 이영희 동창이 법무법인 바른의 경영 담당 대표변호사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다. 이영희 동창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공채 1기'로 바른에 입사했다. 이후 2011년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고, 2018년 운영위원에 선출된 뒤 이번에 경영 대표에까지 선출됐다.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어쏘시에이트 변호사로 출발해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여성 법조인은 이영희 동창이 처음이다.

최영아(의학 95) 동창

'제33회 아산의료봉사상' 수상



최영아 동창이 제33회 아산의료봉사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영아 동창은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노숙인 무료진료부터 재활과 주거, 자립까지 지원하며 20년째 헌신하고 있다. 2009년 여성 노숙인 쉼터인 '마더하우스'를 설립하였으며, 2016년에 마더하우스의 안정적 운영과 해외 사업을 목적으로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인 '회복나눔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노숙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영아 동창은 제18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천정아(법학 04) 동창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법인 소현의 변호사 천정아 동창이 2021년 11월 26일(금)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해 국가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천 변호사는 250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왔다. 이외에도 12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구조 활동,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 김홍희 동창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지형도를 그리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화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성의 힘입니다”

김홍희(불문 70) 동창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을 지낸 큐레이터이자 미술사학자, 비평가이다. 김동창은 모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미술사에 입문하여 비디오 아트와 페미니즘 아트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 및 비평 활동을 하며, 다수의 화제성 있는 전시 기획을 하였고,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과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아 명성을 날렸던 ‘전설의 큐레이터’이기도 하다. 김동창은 쌈지스페이스(1998~2008) 관장, 경기도미술관 관장(2006~2010), 서울시립미술관 관장(2012~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또한 중앙일보 월간미술대상(큐레이터 부문, 1996), 석주미술상(평론부문, 2003), 대통령 옥관 문화훈장(2007)을 받은 바 있으며,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남성 중심 화단에 맞서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김홍희 동창을 만났다.

페미니즘 아트와 비디오 아트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신 건가요.

“백남준 선생을 만난 것이 발상의 전환을 갖는 계기가 되었어요.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청와대 외교정책담당 행정관을 시작으로 뉴욕 한국문화원 문정관과 문화부 문화예술국장 등을 지낸 1세대 문화예술 행정가 천호선 씨가 부군이다), 1980년대 초 뉴욕에 거주할 당시 백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술가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향으로 미술사에서 새로운 영역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된 거죠. 처음에 미술사를 공부할 때는 정통 미술사를 하다가, 비디오 아트, 페미니즘, 퍼포먼스 같은 첨단 장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

했어요. 모교 미술사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뉴욕, 코펜하겐, 오타와 등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석사학위는 캐나다 콩코디아대 미술사학과에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로 받게 됐어요. 박사학위는 홍익대에서 '페미니즘 아트'로 받았지요."

1990년대는 한국 현대미술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생소한 장르인 플럭서스 전시를 유치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어떻게 한국 화단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해외 생활을 10년 마치고 1990년대에 귀국했는데, 그 시기는 백남준 선생님이 1992년 과천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면서 한국에 자주 오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백남준 선생님 비호하에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플럭서스 페스티벌(Fluxus :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전위예술운동)'이라고, 백남준 선생님이 참여했던 해프닝 그룹의 전시회 '서울 플럭서스 페스티벌'(1993)을 제가 국내 처음으로 유치했어요. 이어 1995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인포 아트(Info ART : 정보예술을 뜻하는 인포메이션 아트의 줄임말)'를 백남준 선생님이 감독을 맡았는데, 큐레이터를 맡아줄 것을 제안해서 입문하게 됐어요."

1994년 국내 최초의 페미니즘 전시를 기획하며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었지요.

"백 선생님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심포지엄 발제자로 참여하면서 '한국 여성미술'을 주제로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한국 미술에서 최초의 페미니즘 비평 활동이었습니다. 2년 후인 1994년에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페미니즘 미술



경기도미술관, '페션의 윤리학전' 동반 행사

전 '여성 그 다름과 힘'을 기획했어요. 이 전시를 통해 페미니즘을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고 그 이념과 미학이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여성 미술제 '팔취들의 행진'(1999)은 작고 및 현역, 신진 작가들과 다섯 명의 큐레이터들이 심혈을 기울인 대규모 전시였는데, 제목이 선사하는 대중성과 매체의 관심으로 기대 이상 주목을 받았어요. 이후에도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린 '언니가 돌아왔다'(2008)와 동아시아의 여성 미술로 범위를 확대하였던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2002), '동아시아 페미니즘 : 판타지아전'(2015, 서울시립미술관) 등 페미니즘 관련 전시를 다양하게 기획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화단에서는 비디오 아트나 페미니즘 아트가 주목받지 못한 비주류 장르였어요. 그런 전시를 통해서 주변부에 머무는 새로운 예술을 중심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하게 되

있습니다. 한 축은 비디오 아트, 한 축은 페미니즘 아트, 이 두 개의 장르에서 조금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비디오, 페미니즘 아트라는 비전통·비주류 장르의 큐레이터에서, 제도권인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주목 받은 것이 관장을 맡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2000년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 커미셔너, 2006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과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 참여했었죠. 사람들이 저를 ‘비엔날레맨’이라고 불렀었어요. 그 때문에 명성을 얻고 불려가게 된 거죠. 대안 공간인 쌈지스페이스 관장으로 1998년부터 10년 간, 경기도미술관은 개관하고 초대 관장으로 4년 있었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최초의 여성 관장으로 5년간 있었습니다.”

관장을 역임하며 비전으로 제시한 ‘포스트뮤지엄(Postmuseum)’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술관은 서구 중심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한국에서 받아들여 서구의 패러다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상당히 백인 남성 중심적, 엘리트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정치·지리학적인 요지로 부상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글로벌하면서도 지역적인(한국적인) 그런 미술관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미술관의 관행을 넘어서 새로운 미술관을 만든다는 의미로 포스트뮤지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포스트뮤지엄을 표방하면서 사람(관객) 중심의 미술관, 교육받은 엘리트 관

객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끌어들이는 문턱이 낮은 미술관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인종 차별이 없고 장애인과 여성 등 마이너리티를 우대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3세계 미술, 여성미술, 청년작가전을 정례적으로 소개했어요. 제3세계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관객에게 소개하고, 안목을 많이 넓혀 주는 역할을 했지요. 또 하나, 팝 뮤직 인구를 미술관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파격적으로 가수 지드래곤의 전시를 기획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웃음) 그 덕에 서울시립미술관이 많이 알려졌지요. 팝뮤직, 영화, 건축과 같은 인접 분야와 교류하는 다원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관 문턱을 낮추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현대 미술은 낯설고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 미술은 어려워요. 물리나 화학도 공식을 알아야 이해하듯이 현대 미술도 코드를 알아야 돼요.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묵시록적인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 전시를 봐야 되고, 미술 관련 서적도 많이 읽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경향신문』의 〈김홍희의 페미니즘 미술 읽기〉는 한국 페미니즘 작가와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성 작가와 여성 미술을 폄훼하고 소외시킨 남성 중심 화단에 맞서, 독자들에게 페미니즘 미술의 현 상황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경향신문》에 여성 페미니즘 미술을 특집으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 페미니즘 미술 작가들이 계속 새로운 작업을 내놓고 있고, 젊은 작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술 현장에서 작가들을 관심 있게 보고 해석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모교 출신 작가들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지금 연재되는 칼럼은 화두 중심입니다. 여성성, 신체, 생태, 광기, 알레고리, 형상 대 추상, 문명 비판, 연대 활동 등 하나의 화두를 놓고 시니어 작가와 중진, 신진 작가를 2~3인씩 짹을 지어서, 같은 고민을 하지만 표현 양식이 다른 작업들을 한데 묶어 소개하는 거죠. 신문에 맞춰서 가능하면 좀 대중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칼럼 연재가 1년 예정이었는데 3회가 연장돼 2022년 3월 15회로 끝을 맺게 돼요. 원고를 보완해서 2022년 안에 책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한국의 미술가 특히 여성 미술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중적 보급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저의 열망은 출판과 함께 책 내용을 전시로 만들고 싶어요. 화두를 중심으로 하는 칼럼이라 전시 구현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하는 전시가 아니라 젊은 큐레이터 열 명 정도 초대해서 한 섹션마다 맡기고 나는 총감독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활동은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모으고 다양성도 보여줄 수 있어요.”

2020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 대표로 연설하셨지요.

“이화여대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 학창 시절

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졸업 후 공부하고 활동하는 동안 참으로 커다란 배경이 되어주었어요. 되돌아 보면 모교와 동창들에 대해 고마움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페미니즘 미술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게 여성의식을 일깨워 준 이대라는 자양분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50주년 재상봉 동창 대표로 동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 동창

끝으로 이화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여성들의 자기 발전이 사회 발전을 이루고, 후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성의 힘이라고 봐요. 여성으로서 젠더 의식을 갖는 것이 자기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페미니즘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여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화두입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 사회가 존속하는 한 결코 폐지될 수 없는 여성들의 문화적 과제입니다. 여성들의 창의력과 지적 활동은 미래 사회를 규정짓는 중요한 인자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모두 이대가 배출한 선배 여성 운동가들의 뒤를 이어, 창의력 있는 문화인 이자 건강한 생활인으로 여성 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당부합니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가 시작되는 곳을 지키는 사람들

이화보육인회는 모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또는 보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화인들의 모임이다. 2009년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의 부름으로 모임을 시작했고,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이 근무하는 선진 기관 탐방, 모교 교수님과의 모임, 워크숍, 콜로키움, 국제 세미나 및 각종 문화 생활 등을 함께한다. 이화보육인회 정향림(유교 88, IBK참! 좋은어린이집 원장) 4대 회장, 이현희(유교 84, 서초구 느티나무어린이집 원장) 1대 회장, 강숙현(유교 86,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3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화의 자부심과 보육 현장에서의 발전 기원

모교 안에 어린이 연구원이 생기고 원장이 된 이기숙 교수가 어린이집 또는 보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화인을 모아 보자 하여 첫 모임을 시작했다. 유아교육학과 동창들은 주로 유치원에 취업하는데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려운 지역의 새마을 유아원에서 일했던 박경애(유교 71) 동창을 최고참 선배로 해서 11명이 모였다.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얼떨결에 1대 회장을 맡았다는 겸손한 덕장 이현희 동창은 학창 시절 이기숙 교수를 떠올린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번듯한 전공 서적이 없었고 대학원 들어간 후인 1984년에 처음으로 유아교육 과정이 출판되었

어요. 교수님들이 주신 자료를 복사해서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 이기숙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온 30대 초반의 젊은 교수님으로 학생들의 문제점들을 콕콕 짚어 주셨죠.” 연구조교로 20대 때부터 이기숙 교수 곁에 있던 강숙현 동창도 덧붙여 말한다. “이기숙 교수님은 생각의 깊이,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비전, 본인이 공부한 학문의 깊이와 영역,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을 해준 거인이셨어요. 학생들에게 항상 대가 없이 베푸셨지요. 제자들이 뿌리 없이 떠돌지 않고 자부심을 지니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이화보육인회이고 초창기에 이현희 원장님의 잘 이끌어 주셨지요.”

선진 기관 탐방, 콜로키움 그리고 은사님들

이화보육인회는 봄 정기 모임 때 선진 기관 탐방, 콜로키움(학회 또는 세미나)을 해왔다. 주로 회원들이 원장인 국회 제2어린이집, 포스코 어린이집, 한샘 어린이집, 엔씨소프트 어린이집, 책으로 깨우치기 등 현장을 다녔다. 일반 어린이집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직장 어린이집의 새로운 시설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각 기관의 특색 있는 운영도 접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그 회사의 사업 아이템으로 개발 중인 경우도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신세계가 펼쳐

지고 있었다.

정 회장은 선진 기관 탐방을 통해 변화를 가장 빠르게 직접 체험한다. “예전에는 시설물이나 인테리어에 알록달록 원색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기관에 가 보면 색상이나 디자인이 어른이 봐도 멋 있고 아름답다고 느낄 만큼 수준이 높아졌고, 시설들도 어린이 발달 수준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석사과정 때 이기숙 교수를 도와 어린이 시설 설비 기준 평준화 연구를 했던 강 동창은 30년 전만 해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부러웠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각각의 여전이 다른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재구성해서 단점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극대화시키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어린이집 탐방의 장점이다.

선진기관 탐방은 어린이집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문해력 발달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인 최혜영(유교 89) 회원의 ‘책으로 깨우치기’를 방문하여 언어와 인지에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접했다. 여기서 좋은 에너지를 얻은 강 동창은 4년간 ‘책으로 깨우치기’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순천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부모 교육을 하

고 있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그냥 읽어 주고 만다든지 글자를 이해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던 엄마들에게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읽는다든가 사색하는 아이로 성장하면서 엄마와 아이 간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요. 이와 관련한 키워드를 찾다 보니 인터넷에서 Early Literacy를 연구하는 미국 노던아이오와 대학의 한소현(유교 99) 교수와 연락이 되어 이화보육인회에서 국제 콜로키움을 줌으로 진행하기도 했고, 한소현 교수가 이화보육인회 모임에 참여할 계획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이화보육인회는 줌 회의를 더 확장해 최근에는 정향림 회장의 2018년 ‘올해의 이화인’ 동기인 소설가 함정임(불문 88, 동아대 교수) 동창의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보육 현장에서 소진된 느낌이 왔을 때 이화보육인회가 찾은 것은 모교 은사님이었다. 이화보육인회 초창기부터 모교 교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져왔는데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요즘 연구하는 분야 또는 현장의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강숙현 동창은 은사님들께 감사해 한다.

“모교 은사님들도 이 시간을 가치 있다고 생각



2018년 송년 모임 당시



2018년 5월 봄 정기 모임 및 콜로키움 행사에서

해 주셨고, 저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거의 연수급의 강의를 해주셨어요. 게다가 세계적 수준의 이대부속유치원을 이화보육인회에 개방해 주셔서 저희가 보육 현장을 재구성할 때, 부모들 교육할 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강의 주제는 저희가 정해서 요청하기보다는 교수님들이 가장 주력해서 연구하는 부분, 가장 애정을 가지고 퍼뜨리고 싶어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다양했어요. 이런 귀한 시간들 때문에 이화보육인회 참여율도 높았던 것 같아요.”

이화보육인회는 어린이집과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순천 일대 여행, 풀무원 로하스 방문, 서촌 한옥마을 나들이, 뮤지컬 관람, 미술관 관람, 제주도 여행, 창덕궁 나들이 등 함께 문화 생활을 하면서 함께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제주도 여행을 가서도 소아정신과 의사의 특강을 듣는다든가, 나들이를 가도 뭐라도 하나 구입해 어린이집에서 교육 도구로 사용할 생각을 하는 타고난 보육인들이다.

선물 같은 이화보육인회, 사제 동행의 행복한 삶

정향림 회장에게 이화보육인회는 선물이다. “선물은 늘 기대하게 되고, 받으면 뭔가 새롭고 도움

이 되고 즐겁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지요. 또한 반을 사람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손길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모교 교수님들과 저의 선후배들 모두의 관계에 있어서 주거나 받는 선물과 같은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강숙현 동창은 사제 동행의 삶에서 보람을 느낀다. “지방대학이다 보니 좌절감을 지니고 입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우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강조해요. 그 후에 이론적인 재무장도 시키고 저와 만나는 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나간 제자들이 찾아와 저도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며 그 이야기가 마음에 꽂혀 보육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을 하면, 내가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렸구나 싶지요. 제자와 함께 가는 사제 동행, 제자들과 보육인으로서 서로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유치원에서 20년, 어린이집에서 10여 년 아이들과 생활한 정향림 회장 역시 감사와 보람 속에 생활한다. “빼뚤빼뚤한 글씨로 또는 동그라미 하나에 눈만 찍어 놓은 손편지를 건네주며 ‘원장님 사랑해요, 예뻐요’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을 볼 때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함께 했던 교사들 10여 명이 원장이 되어 지금도 찾아오고 퇴근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전화해 올 때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교육의 첫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화보육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꾀하며 보육 현장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협신을 하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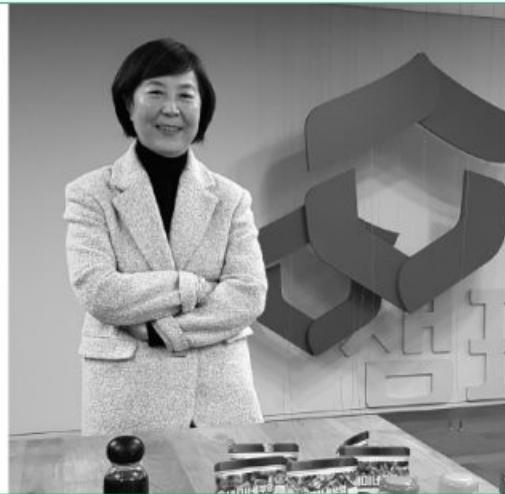


국회 제2어린이집을 방문한 회원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주)샘표식품 마케팅본부 총괄본부장 서동순 동창

“재미있게 일하면 실패해도 후회가 없고 다시 일할 동기가 되죠”



한 번 들으면 계속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 강한 광고 노랫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샘표식품의 ‘연두해요~ 연두해요~’이다. (주)샘표 마케팅본부 총괄본부장이자 전무이사로 있는 서동순(식영 89) 동창은 장류로 유명한 ‘70년 발효명가’ 샘표의 대표 제품 요리 에센스 ‘연두’ 외에도 현미 발효식초 ‘백년동안 흑초’, 최근에 출시한 ‘새미네 부엌’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의 마케팅을 도맡았던 주인공이다.

나의 일에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

서 동창은 파스퇴르유업 공채 1기로 입사해 연구소 제품개발팀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서울우유 연구소, 두산R&D센터를 거치면서 주어진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공부로 채워 나갔던 전형적인 ‘샐러던트(Saladent: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편집자 주)’이다.

“처음에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 설계를 할 만한 능력도 좀 부족했어요. 내가 대학 때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하고 절감했죠.”(웃음)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모교 대학원에서 2년 동안 제품 개발, 관능 검사, 소비자 평가 등을 전문 분야로 석사를 마친 뒤 서울우유연구소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여전했다.

“좀 더 능력을 발휘하고 전문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하나의 부속 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최종 단계인 회사의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품을 개발하면서도 과연 그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지, 이 제품을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떤 콘셉트를 잡아야 할지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 동창은 직장의 업무를 단순히 ‘일’로만 여기지 않았다.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스타일이랄까? 그 후 소비자 연구로 박사 과정을 마친 서 동창은

곧바로 그 분야의 경험 많은 전문가를 영입하던 두산R&D센터 기초기술연구소 고객 연구팀의 책임연구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소비자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전담하고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전문가로 거듭났다.

2006년 소비자 연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던 샘표식품에서 세미나 의뢰가 왔다. 세미나가 끝난 후 샘표 박진선 대표는 서 동창에게 “샘표의 비전이 한식 소스인 장류를 통해 한국 음식을, 더 나아가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소비자들의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며 같이 일해 보자고 제안했다.

“사실 두산이 인지도도 높고 매출 규모 역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회사였지만, 한식의 세계화에 동참하는 일이 훨씬 가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세미나 때 대표와 직원들이 격의 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나의 의견이 좀 더 자유롭게 경영진에 반영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샘표 마케팅 리서치팀 팀장으로 일을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온 서 동창은 이사, 상무를 거쳐 현재 전무로 재직하기까지 15년간 샘표에 몸담고 있다.

서 동창에게는 2011년 이사 승진을 계기로 샘표의 첫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닌다. 거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1946년 창립해 국내 식품회사 중 가장 오래되고 보수적인 곳에서 인정받아 임원까지 올라왔다는 점,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식품 업계인데도 남자들이 대부분 임원으로 포진한 남성 중심 회사에서 여성의 능력을 보여 줬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서 동창은 꾸준히 한 직장에서 한 우물을 팠던 점도 주효했다고 덧붙인다.

“한 회사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전문성을 기르는 데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런 생각 덕분에 제가 임원까지 될 수 있었던 같아요. 마케팅 임원의 평균 수명이 2~3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거의 10년 동안 있는 걸 보면 꾸준함이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성공의 비결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것

샘표 입사 후 브랜드를 론칭하는 마케팅까지 담당하면서 마케팅 리서치팀과 브랜드팀을 겸직하게 된 서 동창은 마케팅 분야에 첫발을 내디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처음에 마케팅까지 맡아 보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에 거부했어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의견 제시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마케팅을 해본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모든 일의 기본은 같다’라는 인사팀장님의 말씀에 설득당했어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거부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저에게 이익일지 물으시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했으니 후회는 없을 것이고, 성공하면 오롯이 너의 성과이고 실력이니 무조건 도전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었죠.”

서 동창은 당시 고전하고 있던 ‘마시는 흑초’ 브랜드를 맡아 성공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이 제품의 특성부터 소비자층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영업팀을 설득해 가며 프리미엄으로 리뉴얼해 출시한 것이 바로 ‘백년동안 흑초’예요. 연 8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서 동창의 업무 모습(〈유퀴즈온더블럭〉캡처)

있던 제품을 새롭게 론칭해 6개월 만에 50억을 달성하고 그 후 150억, 200억까지 키워냈죠.”

‘연두’ 역시 서 동창이 리뉴얼 해서 성공시킨 사례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연두는 사실 처음에 ‘4세대 콩 발효 액상 조미료’라는 콘셉트로 조미료 시장에 론칭했다가 실패했던 브랜드이다.

“연구원들이 콩 단백질을 발효해 감칠맛을 올린 제품을 개발했고 기획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론칭했는데 생각보다 판매가 부진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진단해 보고 어떻게 판매를 올릴지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었죠. 문제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한 데 있었어요.”

한식의 핵심은 간장이나 된장 등 콩 단백질을 발효해서 나오는 아주 깊은 감칠맛에 있다. 단일 콩 발효 연구소로는 최대 규모의 연구소를 세울 정도로 콩 발효 제품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샘표. 그런 회사가 만들었으니 천연재료를 내세운 다른 브랜드의 조미료보다 한수 위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왜일까? 소비자들은 수많은 종류의 간장들과 연두와의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서양 음식의 등장과 함께 외식문화가 증가하면서 간장 시장이 위축되었던데다 ‘조미료’는 인공적·화학적이라는 불신이 팽배했던 당시 분위기도 한몫했다. 몸에 나쁜 것이니 가급적 쓰지 말자는 상황에서 연두는 더욱 설 자리를 잃었던 것이다.

“‘연두’의 리뉴얼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쓰게 하려면 이거 하나만 넣어도 요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간장의 이미지도, 조미료라는 말도 모두 짹 빼고 기존의 카테고리를 다 끊어내자,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요리 에센스 연두’가 재탄생했지요.”

그러자 ‘이게 뭐지? 한번 써볼까’ 호기심 반 신선함 반으로 시장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리의 복잡한 과정을 걷어낸 ‘새미네부엌’

샘표 하면 전통 있는 식품회사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여기에는 ‘신뢰와 친근감’이라는 긍정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덜 참신하고 덜 흥미롭다’는 부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샘표의 선호도를 연령대별로 조사해 봤더니 어느 정도 요리를 할 줄 아는 4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제는 젊은 소비자와도 소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필요성이 절실했죠.”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잡아낸 키워드는 ‘한식은 건강엔 좋지만 그 밤에 그 나물이다, 즉 새로 움이 없다’는 것과 ‘조리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 샘표는 수차례의 연구와 논의 끝에 기존의

틀을 깨고 한식도 라면이나 스파게티처럼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브랜드를 내놓기로 한다. 이름도 깜찍한 ‘새미네부엌’은 그렇게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요리를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여길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탄생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해 요리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자는 의도로 출시했던 ‘새미네부엌’은 뜻밖에도 요리에 지친 40~50대에게도 환영받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회사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서 동창의 손길을 거치면 대박이 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제품에 대한 안목이 탁월하다. 과연 그 비결은 뭘까?

“저는 지금도 어떤 기획을 할 때 ‘이게 정말 될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의심해요. 만약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제품의 콘셉트를 부정하면서 밑바닥까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 것에 대한 답을 내보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가본 다음에는 반대로 그 콘셉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수십 가지 이유와 최선의 길을 찾아요. 앞서 고민했던 문제점들은 다 잊고 ‘이건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저한테 막 주입하죠. 성공할 거라는 강한 확신감을 가지고 영업사원과 바이어를 설득하고 홍보 문구도 만들어요. 제 가 한 번 끝까지 부정해 봤기 때문에 누가 안 된다고 하면 자신 있게 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일은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서 동창의 마케팅 철학이 빛을 발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그가 천상 마케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하게 된 것은 다음 말이었다.

“제품을 출시하고 나면 가만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반응을 계속 예의 주시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면 끊임없이 보완·개선하고 메시지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제품을 키워 나가죠. 그런 점에서 마케팅은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사회 진출을 앞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그런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바로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인지 충분히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아무리 일류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오래 못 가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일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성과가 따라오죠. 설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재미있게 일했으니 후회가 없겠죠. 또 그것이 다시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바쁜 일정 중에도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서 동창. 그것이 오늘날 그를 있게 했음을, 그것이 인생의 올바른 길임을 가르쳐 준 인터뷰였다.



생포의 ‘우리맛 연구소’에서 제품을 시식하는 모습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총동창회 소식

대바자회 평가와 연말 행사 안내

2021년도 10월 정기 임원회가 2021년 10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줌(Zoom)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으로 열린 '대바자회' 평가와 11월 중 개최 할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대바자회'에 이경숙·김영주 고문 및 임원진들이 도움을 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대바자회는 온라인 전체 공개로 진행하여 접근성이 수월하였음에도 해외 지회에서 쉽게 물품 구매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전해 왔다고 알렸다. 김상희(가관 81) 생활환경대학 회장은 생활환경대학의 수익이 예년보다 감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동창들의 참여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대바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바자회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남

상택 총동창회장은 대바자회의 온라인 동영상을 공개로 진행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 행사를 '2021이화를 응원합니다'로 바꿔 개최할 예정이며, 모교발전기금 전달식은 11월 18일(목) 1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김은미 총장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후원 티켓은 1,500장을 발매할 예정이며 감사카드, 수첩, 달력과 브로치, 타월 2장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준비하였다고 알렸다. 동창회 연하장은 특수교육과 이소현 교수의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에서 제작 중이며 연하장 구매를 원하는 동창은 실비로 구매 가능하다고 알렸다.

한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의 이화인(이 올) 연합회'는 총 1,300여 명의 동창으로 구성된 총동창회 산하 단체이며,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두 번째 모임을 10월 23일(토) 오전 11시 비대면 줌으로 개최하며 홍보를 위해 포토카드를 발송하였다고 공지하였다.

총동창회 산하 단체인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회장단 소개

2021년 11월 18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

회의실에서 11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2021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 전에 대해서 논의하며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후원 티켓 1,500장(티켓당 10만 원)을 완판하여 100장을 추가로 제작하였다고 안내하고 각 과, 대학(원) 회장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이화가족 성탄예배' 준비 사항을 알리며, "올해는 교육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넣어 성탄예배 동영상 을 제작 중이며,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http://bit.ly/ewhaalum>)을 통해 12월 2일(목) 오후 3시에 예배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산하 단체인 '올

해의 이화인(아울)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총동창회 감사인 임진(작곡 72) 동창이 선출되었음을 알렸고, '2021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에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11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비대면으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회장단이 줌으로 참석하였음을 전했다.

졸업 50주년 동창들에 대한 예우 논의

2021년 12월 9일(목) 12월 정기 임원회가 줌 화상회의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21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 평가가 있었다. 부피와 양이 적지 않은 선물세트를 각 과 회장이 직접 택배 발송을 하는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토로한 곳이 있어, 다음에는 다른 방식의 택배 발송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

였다. 한편 선물 세트에 포함된 브로치는 제작비 가 많이 들었지만 반응이 좋아 동창들의 추가 주문이 늘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2022년 동창의 날 기념식을 빛낼 '올해의 이화인'과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를 2022년 2월 말까지 추천받고 있음을 전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어진 안건 토의에서, 건강 연령이 높아 지면서 동창의 날 기념식에 점점 참여가 늘고 있는 졸업 50주년 동창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화를 응원합니다' 공간 꾸미기와 선물 세트 발송에 적극 협력

11월 16일(화) 총동창회 부장회의가 열렸다. 방역 수칙을 지킨 가운데 이날 모인 부장들은 '2021 이화를 응원합니다' 후원 티켓 구매자에게 전달할 선물 세트 포장과 함께, 11월 18일(목)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모교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할 공간 꾸미기에 한마음으로 나섰다. 빨강, 초록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풍기는 예쁜 공간이 모



두의 아이디어와 힘을 보태 만들어졌다.

한편 총동창회 산하 단체인 '올해의 이화인 연



‘연합회’에서도 11월 19일(금)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 임진 회장, 최은영 총무, 권미경 회계가 모여 131개 선물 세트 배송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는 후원

티켓 233개를 판매하는 등 총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부 소식

퇴임 앞둔 신은경 교수 모교 채플에 서다

2021년 10월 24일(일)부터 한 주간, 무용과 신은경 교수가 채플에서 자신이 이화에서 만난 메시아 예수를 설교했다. 2022년 2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인사였다. 신은경 교수는 1974년 모교 무용과에 입학한 이래 대강당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되었고, 30여 년 전 교수가 되어 무용 채플을 드리기 위해 11개 작품을 창작하며,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나선 곳이라 했다. 자신의 대표작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의 영상을 중간중간 담아 이화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학생들에게 전했다. 총동창회와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를 통해 함께 하였던 신은경 교수의 이화의 채플에서의 내용을 아래에 재구성하고 요약해 보았다.

신 교수는 2003년에 초연되어 2019년 제15회의

정기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화여대 총동창회와 교목실 등 이화 가족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며, 무엇보다도 무용과 발레 전공 선후배 50~80명의 학생들이 대를 이어가며 연습에 집중한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엄격한 신앙 교육을 하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신 교수의 뼈와 살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며 세상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이 들 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슬픈 내면에 잠겨 홀로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 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시듯 자신을 만나 주셨다 하며, 헨델의 오라토리오 18번 음악에 맞춘 <발레로 만난 메시아>의 한 장면 – 우물가의 여인 –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의 만남을

보여 주었다.

이후 목회자인 남편을 만나 평생 메시아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두 아이의 엄마, 아내, 사모, 며느리, 강사로 일인 다역을 하며 시간에 쫓기고 체력이 고갈돼 갔다. 스스로 택한 길에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 현실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때 남편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다. 이 고난이 새벽마다 주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님을 만나 소통할 때 불안과 근심을 떨치게 되었다. 그 기쁨을 메시아의 *Rejoice* 음악에 맞추어 청중들에게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군무 영상으로 보여 주었다.

1992년 이화의 무용과 교수로의 부름은 신 교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요 기적이었다. 이후 창단한 ‘이화발레앙상블’을 통해 국내외 공연과 해외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대강당 예배를 위한 작품을 안무할 기회를 갖게 되는 중 2003년 1월 주어진 과제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발레로 창작해 보는 것이었다. 막막한 심적 부담감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장면별로 만들어 가는 동안은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작품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았다. 그해 12월 첫 공연을 올린 후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수익금 전액을 이화동창 선교사들에게 드리게 되며 선교부의 기도 후원을 받게 되었다. 발레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임 받으며 차츰 자신을 이화에 부르신 이유를 알아가게 되었다.

2004년부터는 연세대와 한동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채플과 군부대의 선교를 위해 *〈탕자〉*, *〈욥〉*, *〈스크랜턴〉*, *〈메시아〉* 등 다수의 작품으로 이화를 알리고 기독교 문화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신 교수는 이를 다음 세대가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며 언어 장벽



신은경 교수가 창작한 *〈발레로 만난 메시아〉*

이 없는 무용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됨을 알게 되었다.

매년 신은경 교수는 *〈메시아〉*를 무대에 올릴 때마다 안무의 재구성과 작품의 신선한 감동과 예술적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해 왔다. 사실 교육과 업무도 많고 매년 출연자들이 바뀌는 것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이었으나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풀어나갈 때 놀라운 비밀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새벽 미명에 빈 무덤을 찾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를 전파하고 싶은 간절함도 창작에 담아 보았다. 헨델 오라토리오에서 *〈내 주는 살아 계시고〉*의 독창에 맞춘 발레 영상은 신은경 교수의 일생에 찾아오신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와 감동의 표현이었다. 이화를 세우고 믿음을 실천한 스크랜튼 선생님의 후예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학문의 영역에서 온몸 다해 최선 다하시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신 교수는 학생들에게 주는 당부로, 자신의 전공을 닦아가는 그 길에서 ‘메시아’를 만나 그 해답을 찾기를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신은경 교수는 “이유 없는 사건은 없다. 의미 없는 존재는 없다. 필요 없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

재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메시아〉의 클라이맥스인 〈할렐루야〉에 맞춘 자신의 창작 발레로 한 주간 이화인들과 감동의 채플을 드렸다. 신은경 교수의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와 동창들의 인연은

온은한 감동으로 우리 가슴에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신은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글·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

고(故) 김옥길 총장님의 체취가 남은 고사리 수련원에서의 은혜

가을바람이 기분 좋은 날, 9월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조령산 휴양림 안 이화여대 고사리 수련원에서 ‘2021 총동창회 선교부 가을 수련회’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2차 백신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된 사람들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월요일 저녁 기도회와 화요일 오전 선교부 기도 모임은 줌(Zoom)으로 함께 진행되었다.

고사리 수련원은 고 김옥길 총장님께서 은퇴하신 후 소천하시기 전까지의 말년을 보낸 곳이다.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게 우리나라 전통 양반 가옥의 분위를 물씬 풍겼고, 동서양이 조화로운 모습이었다. 실내에 들어서니 방마다 총장님의 체취가 가득 맨 소박한 옛 가구들과 흔들의자, 나무 십자가, 성경책이 펼쳐져 놓여 있었다. 마당에는 작은 우물과 연못, 뗏마루가 달린 별채가 운치를 더해 주었다. 뜰 안쪽에 자리한 김 총장님의 흥상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듯하였다. 가족들이 사용하시는 집임에도 특별히 집을 선뜻 내어 주셔서 이화여대 동창 선교부에서 8명의 선후배 선교

부장들이 김 총장님의 늘 기도하시던 그 집에 함께 모여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뜻깊었다.

수련회 월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은 줌 모임으로 진행했다. 우간다에서 25년간 학원 선교를 하고 있는 김영자(영문 66) 선교사님의 사역과 탈북자를 위하여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수옥(기독 64)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다. 이번 수련 회의 주제가 ‘야곱의 압복강 기도(창 32:24)–선교와 통일의 꿈’인데, 두 분의 사역을 통해 세계 열방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탈북인들과 이후의 통일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김영자 선교사님은 우간다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며 복음 전하여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들이 현지인 지도자가 되어 또 다른 지역들에 교회를 개척 하며 영혼 구령에 힘쓰는 귀한 나눔을 해주셨다. 제자 중 개척 하며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제자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



생전에 김옥길 총장님의 사용했던 흔들의자

다' 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벽돌이 아닌 나무로 일단 교회를 짓고 이후에 영혼들이 모이면 더욱 견고히 짓도록 조언해 주신 것과 그런 조언에 그대로 순종한 제자의 간증을 통해 참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김 선교사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간다에서 여러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의 열매들로 낳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큰 감동이었다.

이수옥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탈북인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으로 품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감싸 안아 주시는 모습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

중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오시게 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수옥 선교사님께 탈북인 영혼들을 붙여 주신다고 하셨다. 현재 선교사님의 탈북인 제자 중 두 분이 각각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제주도에 개척된 교회는 탈북인뿐만 아니라 노숙자들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며 앞길을 인도해 주시길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줌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현장에 있는 선교부원들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합심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자의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간증 시간을 가졌다. 거의 반세기 전, 학창 시절에 고사리 수련원을 다녀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묻어났다.

다음날 화요일 아침, 오랜만에 조령산 휴양림의 푸른 소나무 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산책하고 자연을 만끽한 시간을 가지는데, 김 총장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늘 푸근한 웃음을 잊지 않으셨던 그리운 김 총장님. 학창 시절, 총학생회 회장단을

이대 후문 근처에 있는 자택으로 부르셔서 집에서 뽑은 귀한 메밀국수와 맛깔스러운 두툼한 녹두 빈 대떡을 한 상 차려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넉넉한 인품을 갖고 계셨다. 조형 예술대 학생회장이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날 때 “김귀주~~” 하시며 꼭 이름을 불러 주셨던 탁월한 기억력의 김 총장님. 지금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는다.

오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다시 줌으로 진행되는 선교부 화요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매주 선교부로 전해져 오는 선교지의 기도 소식들과 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의 기도 제목들로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 수련회장에서 줌으로 참석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랍게 일해 주실 것이 기대되었다.

고사리 한옥, 사람의 온기 없는 쓸쓸한 방 가운데 주인 잊은 혼들의자가 홀로 뎅그러니 놓여 있던 그 방. 문갑 위에 펼쳐져 있던 김 총장님의 손 때 묻은 성경책 시편 109편.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앉았던 의자가 빈 의자로 남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번 수련회는 고사리 수련원에서 떠올린 김 총장님의 옛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의 내가 여생을 어떻게 주님의 뜻인 선교와 통일을 품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묵상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글·김귀주(동양 74, 조형예대 선교부장)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를 소개합니다

2015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애틀랜타에서 열린 것을 계기로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는 한 달에 한 번 모여 이화가 배출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줌으로 만나다 얼마 전부터 직접 만나고 있다. 이민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주중 하루를 할애한다는 것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꾸준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까지 모임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또 부족한 종이 줌을 통해 모교 선교부 화요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가 모교에 알려지게 되어 기쁘다.

애틀랜타 지회의 홍영자(사회, 61)·홍정자(의학 66) 동창의 동생 홍신옥(피아노 73) 동창은 모교에서 28년간 근무하다가 2003년 은퇴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내슈빌에 있다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나아가 사역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는 지속적으로 홍 동창을 후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8년 홍 동창이 질병(폐암 말기)으로 인해 언니들이 있는 애틀랜타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선교부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현재 전 모교 명예교수이자 총동창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원들



회장을 지낸 성정순(체육 49) 동창을 비롯해 정소영(영문 62)·조성숙(가정 64)·백용명(약학 68), 장윤심(식영 70)·장무성(융합보건 71)·황성희(유교 74)·차희숙(체육 77)·김영례(심리 79)·김정희(약학 79)·신미순(간호 79)·김경원(가관 81)·장명옥(영문 81)·김태원(피아노 86) 동창 등 1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머나먼 지구의 반대편에서, 매주 줌으로 모이는 총동창회 선교부 화요기도 모임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화가족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계속 줌으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혜택도 있음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린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모교 교회의 예배와 각종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이고 선물인 것 같다.

135년 동안 우리 이화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비록 우리는 고국을 떠나 멀리 와 있지만 마음으로 항상 이화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50년대의 전쟁과 기근, 가난, 그를 이겨내고 반세기 만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민의 삶을 살고 있다.

이화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화가 배출한 선교사들과 이화의 동창이 있음을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되길 소원한다.

글·조성숙(가정 64,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장)

미래 이화를 견인할

'Ewha Frontier 10-10 사업' 추진

모교는 10월 5일(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도약을 이끌어 나갈 선도 분야와 도전 분야 각 10개 사업단, 총 20개 사업단을 선정하고자 'Ewha Frontier 10-10 사업'을 공고했다. 'Ewha Frontier 10-10 사업'은 김은미 총장이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모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학 발전계획 〈Ewha Vision 2030+〉의 주요 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연구 생태

계 조성'의 대표 추진과제이다.

사업 선정 평가는 11~12월 중 진행되며, 2022년 3월에 개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에 공지된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처(처장 이향숙)는 모교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확산·홍보하기 위해 'PURE 서비스(<https://ewha.elsevierpure.com/>)'를 공식 오픈 했다. 'Ewha Frontier 10-10 사업'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교두보라면, PURE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창의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확보된 연구 성과의 확산·홍보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국내외 평판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2단계 상승하며 약진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모교가 2단계 상승한 종합평가 6위를 차지했다.

모교는 이번 평가에서 교수연구 부문 6위를 차지했으며, 이중 '인문사회 국내논문당 피인용' 1위, '교수당 자체 연구비' 6위를 기록했다. 또한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부문 중 '중도 포기 학생

비율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중도 포기율'에서 3위, '외국 학생 중도 포기율'에서 4위를 차지하고, '순수 취업률' 5위, '유지 취업률' 9위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대학평가에서 종합평가 및 계열별 평가 부문 모두에서 모교 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 수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종합평가 교수 연구 부문에서 '인문사회 국내논문당 피인용' 1위에 오른 데 이어, 계열평가에서는 인문계열 5위, 사회계열 6위를 차지했다.

모교가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모교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연구팀은 정부의 주요 학술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를 선도해 가고 있다. 2020년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4단계 'BK21 사업'에 사회복지학과 교육연구단과 사학과 교육연구팀이 선정된 바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에 2019년 한국문화연구원,

2020년 이화사학연구소,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미래교육연구소, 에듀테크융합연구소에 이어 2021년 아시아여성학센터,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특수교육과 연구팀이 선정되며 특성화·전문화된 인문·사회분야 연구 거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도 학술인문사회학술지원사업'에 아시아여성학센터와 통일학연구원, 교과교육연구소가 선정되어 심화된 인문·사회·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모교,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모교는 금융감독원, 주요 국내 기업, 주한 영국 대사관과 함께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1.5D' 개발 추진을 위한 산·관·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프론티어-1.5D'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1850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 성취를 선도하고 기후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감독 당국과 기업·학계·외국기관과의 협력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으로, 향후 국제적으로 기후리스크 모형 개발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 13일(월)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 체결 행사는 모교 김은미 총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 나이젤 토킹(Nigel Topping) 영국 정부 COP26 고위급 기후대응대사,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온 모교는 이번 협약의 유일한 교육·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연구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모교 엘텍공과대학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총괄연구책임자 최용상 교수)은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론과 연구진을 지원하고, 각 가입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 수행한다.

이번 산·관·학 협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기후변화 위기가 가져올 예측불가능한 리스크와 위



힘을 뜻하는 ‘그린 스완(Green Swan)’ 대응을 위한 금융 당국의 역할에 기반한 것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필요 및 역량을 조율하여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김은미 총장, 美 ‘창린티엔 리더십상’ 수상

김은미 총장이 11월 9일(화)(미국 현지 시간 기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이 수여하는 ‘2021 창린티엔 리더십상(Chang-Lin Tien Distinguished Leadership Award)’을 수상했다.

아시아재단은 아시아 전역의 삶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비영리 국제개발기구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54년 설립된 이래 여성 역량 강화를 비롯, 거버넌스 강화, 경제적 기회 확대, 환경 복원력 증대, 국제협력 촉진의 5대 목표 해결을 위해 기여해 왔다.

아시아재단은 탁월한 업적과 훌륭한 리더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해온 글로벌 리더에게 매년 ‘창린티엔 리더십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아시아재단은 김은미 총장이 한국과 아시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과 리더십을 통해 많은 이들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문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점을 인정하여 ‘창린티엔 리더십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은 아시아 이민자 출신으로 UC버클리 총장과 아시아재단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과학,



고등교육, 미-아시아 관계에 많은 업적을 남긴 고(故) 창린티엔(Chang-Lin Tien) 박사의 뜻을 기리며 제정됐다. 그동안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2018), 오윤 산자수렌 전 유엔환경총회 의장(2019), 라탄 타타 인도 최대 기업 타타그룹 명예 회장(2020)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은미 총장은 시상식에서 “1950년대 당시 빈곤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아시아재단의 지원은 생명 줄이자 기본 존엄, 공동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재단으로부터 수상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단히 감사하며 창린티엔 박사의 유산을 기리고 이분의 뜻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 모교의 총장이 되어 단일 여자대학 이자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대학 중 하나를 이끌게 된 것을 진정한 영광이자 특권으로 생각하며 이번 수상으로 창린티엔상과 아시아재단에 필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준희 동창, 모교 발전 위해 51억 8,000만 원 쾌척

김준희(영문 60) 동창이 모교 발전을 위하여 51억 8,000만 원을 쾌척했다. 김준희 동창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고, 나에게 주어진 뜻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평소의 결심을 실천하고자 거액 기부를 결정했다. 모교는 지난 5월 17일(월) 기부 협약식을 개최하여 뜻깊은 결정을 한 김준희 동창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김준희 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이를 이화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북한이 고향인 김준희 동창은 1951년 1·4후퇴 시 남한으로 내려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화에 입학했다. 김 동창은 이화에 입학하여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누릴 수 없었던 많은 혜택과 지원, 선진화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

이화에서 받은 교육과 더불어 나눔·섬김·배려로 대표되는 이화 정신 역시 김 동창의 삶의 방향

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준희 동창은 영문과 졸업 후 전후 최대 원호기관이었던 월드비전에서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을 돋는 해외 후원자들의 영문 편지 번역 업무에 종사하며 본인이 받은 교육과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번역 활동을 함께하던 영문과 후배들이 사회복지단체 굿네이버스를 설립하자 김 동창은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3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등 이화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 동창은 “이화를 졸업하고 보니 이화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나에게 큰 보증인이 되어주었다. 이번 기부는 이화의 졸업생이라는 큰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자 보람”이라며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이화 발전에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모교 발전을 염원했다.

김은미 총장은 “학교 발전에 대단히 큰 힘이 될 결정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깊은 뜻을 잘 받들어 의도하신 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김준희 동창의 후원을 바탕으로 창립 135주년을 맞은 이화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시대와 사회를 선도하는 이화로 거듭나 선배님들이 이룩한 이화의 영광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부 협약식에는 김준희 동창과 부군 강중현 삼진글로벌넷 회장, 김은미 총장, 신경식 대외부총장, 이해선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모교는 김준희 이사장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보희 조형대 명예교수의 판화 <Towards>를 중정했으며, 이화여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김준희 동창의 이름을 새겨 귀한 뜻을 기릴 예정이다.



음악대학

회장 __ 최은희(종음 81)

가평수목원에서 김영의 선생 추모 예배

음악대학 동창회 임원들은 김영의(음악 29) 선생 기일을 맞아 2021년 11월 26일(금) 가평 이화여자대학교수목원(이하 가평수목원)에서 추모 예배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은희 음악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강영숙(종음 79) 부회장, 원현미(작곡 88) 작곡과 회장, 김진우(피아노 88) 피아노과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이화 135년 역사 안에서 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이화의 스승들을 기억하고 이화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 예배는 많은 이화의 스승들이 사랑한 성경 말씀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시작으로, 기도, 성경 봉독, 말씀으로 이어졌으며 김영의 선생이 가장 사랑했던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로 마무리했다.



김영의 선생 추모 예배를 가진 음악대학 동창들

다. 특히 윤금희(피아노 66) 명예교수가 보내온 김영의 선생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해 여느 때보다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음악대학에서는 매년 김영의 선생 기일에 맞추어 가평수목원을 방문해 추모 예배를 드리며 선생의 이화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김영의 선생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뒤 모교 음악대학 학장을 위시하여 한림원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상무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 이래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이사 및 서울시 음악분과 문화위원, 문교부 교육과정음악분과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예술원 원로회원이었으며 우리나라 여성 음악 교육에 매진한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다.

체육대학

회장 __ 전선혜(체육 83)

제12회 대학동문최강전 우승

《아시아투데이》 주최 제12회 대학동문골프최강전에 모교를 대표해서 2팀이 참가하였다. A팀은 장인옥(체육 85)·곽종화(조소 87)·이지화(생미 87) 동창이, B팀은 조선영(체육 80)·이영립(체육 89)·허현미(체육 89) 동창이 참가하였다.



제12회 대학동문골프최강전에 참가한 체육대학 동창들

예선 결과 성적이 좋은 A팀 이지화·곽종화 동창이 여대부 4강(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에 출전하여 준결승전에서 경희대를 이기고, 결승전에서 연세대에 승리하며 최종 우승하였다. 우승 상금 500만 원은 모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의과대학

회장 __ 성시열(의학 81)

온·오프라인으로 정기 총회 진행

의과대학 동창회는 1966년부터 시작하여 거의 매년 송년회를 했는데,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2년 연속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 2020년에 못한 정기 총회는 2021년 3월 초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하여, 동창회와 모교를 빛낸 지현숙(전 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의학 70) 동창과 이영주(전 의과대학 마취과 교수, 의학 72) 동창에게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 상'과 1,000만 원씩의 연구비를 수여하였다. 이어 67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2억 3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제23대 집행부가 출범하며 무사히 이·취임식을 마쳤다.

선후배가 정겹게 만나던 겉기대회, 가을 야유회, 골프대회, 송년회는 모두 취소되었지만, 다양

한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지구촌 곳곳의 선후배가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해였다.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홈커밍 행사에는 줌(Zoom)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창들이 참여하였고, 1887년의 모습대로 복원된 '보구녀관'과 새로 지은 의과대학 건물을 둘러보며 학창 시절을 회상하고, 발전한 모교의 모습에 기뻐했다.

2021년 10월 27일(수)에는 19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평생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려 애쓰며, 초기 한국 이민 1세대와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준 홍금순(의학 67) 동창과 '아름다운 동행'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홍금순 동창이 잠시 고국을 방문했기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돋고 격려할 수 있는 이화 동창회가 있어서 무척 행복하다.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 상'을 수상한 지현숙(사진 왼쪽)·이영주 동창

약학대학

회장 __ 박병희(약학 84)

정기 총회 및 졸업 50주년 축하식 개최

약학대학 동창회는 2021년 10월 26일(화) 동창회관 대의회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제58회 정기 총회 및 22회 졸업 50주년 축하식을 개최하고, 33대 회장으로 박병희 동창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박병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주는 도전과 위기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모교가 새로운 명문 이화의 길을 가도록 우리 약대 동창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후배들의 발전적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58회 정기 총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당신을 후원이사로 모십니다

총동창회 연회비(1년에 한 번씩 3만 원 납부)와 평생회비(평생 한 번 납부, 1984년 이전 졸업 동창은 30만 원, 1985년 이후 졸업 동창은 50만 원) 납부를 통해 총동창회에 큰 사랑을 보여 주시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모교발전기금 마련, 《이화동창》 회보 제작 등 각종 사업을 펼치며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에 사랑을 보여 주시는 이화 동창 여러분께 총동창회 후원이사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는 2년 임기이며, 연 100만 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동창회는 후원이사 여러분을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모교에서도 후원이사님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종합대학을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동창으로서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후원이사 가입을 통해,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규호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영어영문학과

회장 _ 윤유정(76)

학관 재건축 기금 2억 4,000만여 원 모금

2021년 11월 22일(월) 영학회에서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금 2억 4,000만여 원을 모금하여 기부한 테 대하여 모교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미 총장을 비롯하여 강태경 인문과학대 학장 등이 참석했고, 영학회에서는 윤유정 회장을 비롯해 임원 5인이 참석해, 영문과 동창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과 함께 약진하는 이화의 미래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11월 30일(화)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만남의 자리를 갖지 못했던 한 해를 마감하며 영학회의 막내 정수연(01) 동창의 초대로 라움 마티네 콘서트에서 오페라 <카르멘>을 관람하고 식사를 하



라움 마티네 콘서트를 관람한 영문학과 동창들

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임 회장 2명을 비롯해 10명의 임원이 참석해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정담을 나누었고, 영학회의 내년 일정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학과

회장 _ 임복희(93)

학과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행정학과 창설 40주년 기념행사가 2021년 11월 11일(목) 18시 30분, 모교 포스코관 B151호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었다.

제41대 학생회 강주희(재학생, 19학번)·유희진(재학생, 19학번)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학과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행정학과 동창들

제1부는 김유미(07) 학과장의 개회사, 최희숙

(88) 동창회장과 임복희(93) 신임 회장, 그리고 행정학과 교수들의 축사로 시작되어 축하 케이크 커팅식, 유흥희(98) 판사의 '법원의 기본적 구조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관'에 대한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행정학과 학생들의 사연 전달 프로그램과 퀴즈 및 행운권 추첨으로 마무리하였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행정학과의 힘찬 행보를 기원하였다.

받았다.

2021년도 식품공학과 동창회 주요 추진 사업인 식품공학과 동창회 교류 오픈채팅방 개설, 법인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직인 발급 및 동창회 통장 개설, 축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온라인 모임의 장점을 살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주제로 한 온라인 생방송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1, 2, 3등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후 진행된 경품 추첨 순서에는 공과대학 동창회로부터 지원받은 공대 소모임 지원금으로 선물 중정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류가 어려워진 동창회 활성화 방안 및 소모임 개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년 오프라인 행사를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식품공학과

회장__김명주(17)

온라인으로 제5회 정기 총회 진행

2021년 11월 6일(토) '2021 제5회 식품공학과 동문회 정기 총회'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식품공학과 동창회는 매년 11월 동창들이 함께하는 정기 총회를 개최해 왔으나, 2021년도 정기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줌(Zoom) 미팅으로 진행했다.

개회식으로 식품공학전공 교수진인 김영석·박진병·김병식 교수가 대표로 식품공학과 동창회의 발전을 응원하여 동창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종교음악과

회장__오지영(88)

박신화 음악대학 학장과의 만남

2021년 11월 22일(월) 모교 음악대학 음악관에서 임원을 비롯한 종교음악과 동창들이 새로 취임한 음악대학 학장 박신화 교수와 만남을 가졌다.

교회음악 전반(성악·오르간·피아노 3개 전공)을 연구했던 종교음악과 동창이기에, 종교음악과 합창단(그레이스 콰이어) 활동 등 지속적으로 동창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교회 예배 의식을 이끌어가는 음악인을 양성한다'는 종교음악과의 기독교 정신으로 교회음악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였다.

한편 동창들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



줌(Zoom) 미팅으로 진행한 식품공학과 온라인 정기총회



음악관에 거울을 기증한 종교음악과 동창들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음악관에 거울을 기증하였다.

서양화과

회장__조은정(85)

성곡미술관에서 제47회 이서전 열어

2021년 9월 2일(목)부터 11일(토)까지 성곡미술관에서 서양화과 동창들의 정기 동창회전인 제47회 이서전 '지구라도 옮길 기세'가 열렸다. 회화·판화·영상·설치·입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참여한 전시회에는 1949년 제1회 졸업생부터 2021년 졸업생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동창들까지 160명이 참여함으로써 서양화과의 역사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를 꿈꾸고 의견을 나누느라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소리를 내는 단체 대화방을 바라본 사람이 "지구라도 옮길 기세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이 전시명이 탄생했다. 개막식은 유튜브로 동시 중계되어 국내외 동창들이 함께 하였다.

서양화과 동창회에서는 가칭 '선배 구술 프로젝트'를 4월부터 진행하여 제1회 졸업생인 신금례(49)·한진수(49) 동창과 2회 졸업생인 이경순(50) 동창의 교육과 작품 세계에 대한 작가의 구술을 영상에 담았다.

이 동창들은, 여성 미술가라는 이유로 국내 최초의 미술대학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의 이화에서의 교육과 한국 미술계에서의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여성 미술의 역사를 온전히 서술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1차분을 9월에 마무리하였다.

영상 자료는 제47회 이서전 전시장 아카이브 영역에서 전시 기간 동안 상영하였으며, 유튜브에도 올려놓았다.

조소과

회장__박신정(85)

운영위원회 및 임원 회의 개최

2021년 11월 19일(금) '조소과 동창회 운영위원회 및 임원 회의'를 스페이스다온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조소과 동창회에서는 박은선(98) 동창을 'ESAarts Award' 의 '2021 MA Award' 부문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MA Award는 'Management Art', 즉 조각회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이서전 개막식



운영위원회 및 임원 회의를 가진 조소과 동창회

관리 및 기획 등 회원 공공을 위해 힘쓰는 동창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1년 MA Award 상금은 300만 원이다.

2021년 상반기 'Artist Group Award' 수상자로는 '조각그룹 비'와 '기이한 감각국전'을 선정한 바 있다.

조소과 동창회는 'ESAarts Award'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금 3,000만 원을 상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런 시작을 열어준 역대 동창회장들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는 행사를 겸한 시상 행사는 2022년 2월 조소과 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제39회 이화조각회 정기전은 2022년 5월에 금보성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개최 예정이다.

정례(79)·이상미(88)·전영선(88)·박희전(90) 동창이 참석하였다. 이번 모임은 팬데믹 시대로 인해 2년 만에 이루어졌다. 현 임원진 소개를 시작으로, 예미회 활동 및 온라인 바자 회계 보고, 이화인의 밤 대체 행사 내용, 12월 18일(토) 온라인 전시로 진행되는 녹미전과 예미 회원들의 전시회 활동 지원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로 이루어지는 녹미전에 참가한 23명의 섬유예술인들의 왕성한 활동을 격려하며 성공적인 전시가 되길 기원하였다.

또한 35년의 역사를 지닌 이화섬유조형회는 11월 22일(월)에 제33회 이화섬유조형전을 온라인 전시로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39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각 작가의 주제에 의해 섬유 소재는 다채롭게 조형적으로 변주되어 표현되었다.

순수예술성과 공예의 기능성, 디자인으로서의 미와 실용성 등 폭넓은 영역을 아우른 출품작들은 한국 섬유예술의 흐름과 성장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처음 시도한 이번 온라인 전시는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단계의 콘텐츠로,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 관객들과 함께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섬유예술과

회장 __ 전영선(88)

예미 회장단 회의 및 이화 섬유조형전

섬유예술과 동창회 예미 회장단은 2021년 11월 13일(토) 오후 12시 서울 논현로에 있는 오미가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효범(61)·오복환(66)·윤귀영(71)·박연실(77)·장영란(77)·박



2년 만에 열린 예미회 회의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회장__이승진(영교 84)

2년 만의 동창회로 친목 다져

2021년 9월 18일(토) 오후 6시,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에 있는 키츠뷔엘(Kitzbühel)에서 모임이 있었다. 참석자는 9명으로 송명래(독문 70)·이숙희(사복 73)·남영우(약학 79)·이순애(체육 80)·고맹임(독문 82)·이승진(영교 84)·이은경(무용 85)·박상희(사회체육 96)·권채란(영문 00) 동창이다.

독일·오스트리아 지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창들이 오래전부터 한 지회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주소록에 등록된 회원 수는 독일 75명, 오스트리아 7명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신임 회장 선거와 동창회 회칙의 결 안전이 있었는데, 2018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승진 동창이 2023년까지 연임하게 되었다. 박상희 부회장, 정예지(커미부 15) 총무도 재임되

었다. 또한 이숙희 동창이 고문으로, 남영우 동창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이 밖에 주소록 정보 확인 및 'EWA 어린이' 지원팀 현황 보고가 있었다.

독일·오스트리아 지회에서는 2018년부터 'Plan International'을 통해 열악한 거주 환경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여자 아이들을 'EWA 어린이'로 선정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교육을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메리 F.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수업에서 이화여자대학 교가 시작된 것처럼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화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EWA 어린이' 5명을 탄생시켰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만에 열린 이번 동창회에서는 회의 일정 외에 지역 관광을 하며 친목을 더 돋보이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서 친목을 다진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동창들

미네소타 지회

회장__김정은(체육 90)

게임을 통해 세대 간 화합 도모해

2021년 5월 22일(토) Minnesota Landscape Arboretum에서 정기 모임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간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되어



수목원에서 대면 모임을 진행한 미네소타 지회

왔으나 백신의 보급으로 30여 명의 동창 및 가족들과 대면 모임을 진행하였다. 동창들의 근황 공유 및 식사와 다과, 게임, 산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선배와 후배 사이의 짹지 연결 게임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 증진을 도모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문화 예술 활동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지영(피아노 01)·홍수정(피아노 05) 동창은 활발한 연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지영 동창은 10월 Hastings Arts Center에서 독주회를 열었으며, 12월에는 이지영·홍수정 동창이 Woodbury에서 각각 연주회를 하였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이영완(정외 81)

김은미 총장과의 만찬 진행

북가주 지회는 팬데믹 중에도 매월 첫 토요일에 월례 모임을 줌(Zoom)으로 진행하였고, 2021년 6월부터 다시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9월 모임은 줌으로 진행했으나, 10월에는 다시 대면 모임을 할 수 있었다.

11월에는 모교 총장인 김은미 총장이 The Asia Foundation으로부터 'Chang-Lin Tien Distinguished Leadership Award'를 받게 되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였다. 동창회 임원들은 공항에서 김 총장을 맞이하였고, 11월 6일(토)에 30여 명의 동창들이 김은미 총장과 함께 만찬을 하며 모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동창들은 <Ewha Vision 2030+> 사업 기금으로 3,200달러를 모금하였고, 국제재단을 통하여 모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위원회에서는 7월 월례 모임 피크닉을 시점으로 기금 모금 바자회를 지속해 왔고, 11월 30일(화) 기준 총 4,302달러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10월에 장학생 모집 공고를 내고 장학금 신청을 받았으며, San Francisco Conservatory 석사과정에서 학업 중인 권수연(피아노 18) 동창을 수혜자로 선정하여 12월 4일(토) 정기총회 겸 연말파티에서 수여하였다.



김은미 총장과의 만찬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 __ 최혜영(생미 86)

'진선미 플러스' 기금 제안

2021년 10월 30일(토) 11시 30분에 주주 식당에서 정기 모임과 진선미회를 가졌다. 팬데믹 이후 야외 모임은 두 차례 있었지만, 식당 등에서 모이는 실내 모임은 20개월 만이라 반가웠다. 이날 회의



정기 모임에 참석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

에서는 양혜자(교육 74) 동창의 기도와 최길자(화학 65) 동창의 서기 보고와 함께 회계 이수자(가정 63) 동창이 이화 호프펀드에 기금을 모아 보낸 것과 국제재단 세인트루이스 장학기금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제재단 이사로 수고했던 정선주(성악 68) 동창이 국제재단 기금 작성액 10만 달러를 달성하여, 헬렌킴 리더십 소사이어티의 멤버가 된 것을 축하하였고, 선재숙(의학 72) 동창이 국제재단 이사로 수고하게 된 것을 아울러 축하하였다.

동창회 모임 때마다 식사비를 지불하는 동창들이 많은데, 이날도 식사비를 미리 지불해 준 동창에게 모두 감사하였다. 양혜자 동창이 “식사 접대를 감사히 받은 동창들은, 대신 식사비를 국제재단 세인트루이스 장학기금을 위한 기금으로 모으자”고 제안하여, 참석한 동창 모두 찬성하였다. 정선주 동창은 이 기금 이름을 ‘진선미 플러스’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회에서 모교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날이 한층 가까워진 듯하여 모두 기뻐하였다. 이 자리에는 백옥순(가정 33) 동창의 장녀인 홍명희씨가 동참하여 이화 가족의 사랑을 나누었다.

11월 4일(목)에 디트로이트 지회 주최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서 최혜영 동창이 북미주지회연합회 서기로 인준되었다. 최혜영 동창은 “모교에서 교양필수 수영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곳에 없었을 것”이

라며, “모교에 생명을 빚진 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애틀 지회

회장 __ 박명호(정외 78)

한국학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2021년 10월 1일(금) 서정자(법학 63) 동창이 운영하는 시애틀 라디오한국 창사 24주년을 맞이하여 동창회의 임원과 동창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또한 워싱턴주 Federal Way City에서는 10월 1일(금)을 ‘라디오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하였다.

10월 23일(토)에는 김유진(성악 95) 동창이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워싱턴주 음악협회가 41번째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한인 사회와 교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시애틀 지회는 매년 워싱턴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2021년 장학생으로 Isabel Norlen 양을 선발했다.

연말모임을 12월 3일(금) Bellevue Newport Yacht Club에서 개최하여 60여 명의 동창과 부군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11월에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 참석하



라디오한국 창사 24주년을 축하하는 시애틀 지회 동창들

여 시애틀 지회 합창반은 율동상을, 동창 3명은 운수대통상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한편 그동안 북미주지회연합회 고문으로 봉사해 온 이정열(조소 11) 동창이 임기를 마쳤다.

싱가포르 지회

회장 __ 박 현(정외 88)

소규모 인원으로 나누어 모임 진행

싱가포르 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모임 규제로 어려운 가운데 소소히 동창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27일(목) 2021년 상반기 결산 회계보고와 회장·운영진 이임식이 줌(Zoom)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회장으로 박현 동창이, 총무로 김규연(중문 00)·박세경(국제사무 08) 동창이 수고해 주기로 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써준 회장 박진경(교공 87) 동창, 총무 배미애(교공 94)·권민지(불문 02) 동창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대면 모임이 극히 제한적인 시기에 새로 동창회에 가입한 서은주(국문 95)·금문혜(법학 03)·서정수(영문 03)·정윤미(영문 03)·김태연(영문 19)·이수린(체육 19) 동창 6명을 사흘에 걸쳐 2명씩 만나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9월 20일(월)과 21일(화)에 이틀에 걸쳐 한가위



한가위 모임에 참석한 싱가포르 지회 동창들

모임을 가졌다. 이때는 모임이 5인까지 가능한 시기여서 코로나19로 고국 방문이 어려워 홀로 명절을 보내는 동창들을 5명씩 초대하여 총 10명과 한가위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명절 저녁을 함께하였다.

2022년에는 상황이 호전되어 역동적이고 활발한 동창회 모임을 기대한다.

오타와 지회

회장 __ 정혜경(교대원 92)

오랜만의 모임으로 귀한 시간 나눠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 모임을 갖지 못하던 중에 드디어 10월 3일(일) 동창회 모임을 갖게 되었다. 동창들은 그동안의 근황을 서로 나누고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선 캐나다연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은퇴하게 된 최영아(문정 85) 동창의 은퇴와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를 축하하였다. 또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게 될 박진희 동창과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으로 봉사할 차정자(수학 67) 동창에 대한 축하도 함께 있었다.

한인 사회의 여러 모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봉사하는 다른 여려 동창들 역시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오랜만의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오타와 지회 동창들

워싱턴DC 지회

회장__서혜경(정외 90)

이사회 총회를 대면으로 개최

2021년 9월 11일(토) Lake Fairfax Park에서 이사회 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4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으로 김귀현(영문 56) 동창을 선출하였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난 동창들은 기쁨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다. 한편 새로운 장학사업을 신설하였다. 워싱턴 D.C. 지역(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내 동포 자녀 중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예정자 포함)을 매해 2명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사업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사회 총회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비대면으로 연례회의를 개최한 클리블랜드 지회

으로 연례회의를 열었다. 문성애 회장의 주최로, 전민자(약학 67)·김정진(의학 72)·인명숙(약학 73)·유용희(국제사무 80)·김진경(의학 81)·김영미(영교 82)·노희용(약학 82)·김인숙(정외 83)·임영미(교육 83)·전희선(의학 88)·최영옥(약학 88)·신성이(컴공 93) 동창 등 모두 13명이 참가하였다.

개회 선언에 이어 교가 제창과 임영미 회계의 회계 보고가 있었다. 김인숙 동창을 2022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김정진 이사의 국제 재단 보고가 있었다. 기부금 조정에 대한 열띤 논의 후, 내년도 기부금 내역이 투표로 결정이 되었다. 연례 모임에서는 특히 회원을 늘리고 기존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클리블랜드 지회 50주년을 2년 앞두고 지난 간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책자 발행하자는 건의에 회원 모두가 적극 찬성하여, 회장을 중심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11월 만남은 북미 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로 대신하였다.

클리블랜드 지회 소식

회장__문성애(생미 81)

비대면으로 개최한 영상 총회

9월 27일(월) 비대면으로 동창회 모임을 갖고, 지회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연례 행사를 기획했다. 10월 27일(수) 저녁 8시 비대면

토론토 지회

회장__윤미경(사복 93)

'이화토론토지회 장학기금' 설립

장학기금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2021년 봄에 구성되어 8명의 위원들이 약 5개월 동안 연구

하며 의논한 결과, 캐나다 한인 장학재단과의 연계로 '이화토론토지회 장학기금'이 설립되었다. 장학부가 정식으로 출범되어, 2022년부터 미래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이화토론토지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토론토 지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동창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준비한 텔런트쇼의 대상 수상이었다. 2020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의 텔런트쇼에서 토론토 지회가 대상을 받으며, 함께 수여받은 대상 상금을 종잣돈으로 하여 '이화토론토지회 장학기금'을 설립하는 발판을 삼게 된 것이다.

2021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서 토론토 지회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게 되어 동창들의 기쁨이 배가 되었다. 11월 21일(일) 연말 총회에서 대상을 받은 텔런트쇼 영상을 참석한 동창들과 함께 감상하였다. 이 대상 상금 또한 장학기금의 종잣돈이 되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다.

임원단이 준비한 <축복송>으로 연말 총회를 훈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였다.

이민자의 삶의 희로애락을 이화 선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보듬어 주고, 함께 걸어가기에 토론토의 이화인들은 오늘도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다.



텔런트쇼 대상 상금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한 토론토 지회 동창들

파리 지회

회장 __ 윤애영(서양 88)

추석 모임으로 고향의 따뜻함을 나누

파리 지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송년회 및 총회를 취소하고, 2021년 3월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총회로 이를 갈음하였다. 이후 파리 지회 창립 멤버인 조화숙(동양 49)·현병유(영문 51) 동창의 부고에도 방역 상황으로 많은 동창이 모이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도 있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방역 패스 소지를 의무화하여 만남의 제약이 많이 완화되었고 그동안 닫혀 있었던 식당들이 영업을 재개하며 소규모 모임이 가능해진 바, 2021년 9월 24일(금) 파리 15구의 만나식당에서 추석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병주(불문 62)·오미자(불문 73)·윤영순(교공 73)·장옥희(심리 73)·윤애영(서양 88)·박지은(가관 96), 안정아(건축 06), 김윤정(국제학부 07) 동창이 참석한 이번 모임 역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간의 안부를 묻고 정갈한 한식 및 송편과 함께 고향의 따뜻함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종식을 기원하며, 재불 이화 동창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추석 모임으로 정겨운 시간을 보낸 파리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박윤옥(간호 75)

도전 정신 가득한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지회는 여전히 매월 줌(Zoom)으로 동창회를 해오고 있는데, 2021년 송년 동창회는 2년 만의 대면 동창회를 계획하며 설레고 있다. 2021년 여름에 6명의 동창이 페어마운트팍에서 합창 영상을 찍었는데,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서 이 합창 영상으로 필라델피아 지회는 율동상을 받았다.

6월 22일(화) 박윤옥 동창이 은퇴 후 틈틈이 배운 성악 레슨으로 줌으로 독창회를 하였고, 김영애(국문 62) 동창은 여든이 넘은 나이를 개의치 않고 꾸준히 글쓰기에 정진하여 《창조문예》에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9월 26일(일) 김영애 동창의 부군 전희근 씨가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고 독창도 하였는데, 청중들이 교회 2층까지 메울 만큼 많이 왔다. 나이와 팬데믹에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좋은 예라 생각된다.

남광선(식영 76) 동창은 정형외과의인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한국의 낙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밟고 있다.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 주소록을 5년만에 재발간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서 율동상을 받은 필라델피아 지회

하였고, 2022년 회장으로 오성실(영문 68) 동창이 선출되었다.

홍콩 지회

회장 __ 한유미(융합보건 90)

미술 관람과 함께한 동창회 모임

2021년 11월 10일(수), 9명의 이화 동창들은 2019년 재개장 이후 현지인들의 명소로 자리잡은 홍콩 예술관(Hong Kong Museum of Art)을 방문하여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에는 중국 근현대 작가들의 그림 및 도자기 등 동양 미술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고즈넉함을 극대화하여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관람 후, 홍콩섬의 전망이 온전히 눈에 들어오는 빅토리아 하버를 걸으며 담소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홍콩의 짧지만 완벽한 가을 날씨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홍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 상황 통제가 잘되고 있어, 홍콩 지회는 매월 정기 모임을 지속하며 친목을 다져 나가고 있다.

12월 동창 모임은 한유미 회장의 초대로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홍콩섬 남부 Tai Tam의 자택에 함께 모여 정겹고 편안한 연말 분위기를 즐겼다.



가을 정취를 만끽한 홍콩 지회 동창들

이경순(서양 50)·조기주(서양 79) 동창

이경순·조기주 동창

이 제5회 모녀전 '발
견의 시학, 구상과 추
상 사이'를 2022년
1월 5일(수)부터 23일
(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조기주 동창의 개인전 '이유 있는 미술시
간'이 2021년 9월 28일(화)부터 10월 11일(월)까지
갤러리오에서 열렸다. 전시는 동명 저서의 수정 중
보판 발행을 기념한 것이다.



이경순 동창 조기주 동창

협회가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문
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시상식은
2021년 12월 1일(수) 대한민국예
술인센터(로운C홀)에서 열렸다.



김선진 동창

김태련(심리 60) 동창

김태련 동창이 원장으로 있는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은 2021
년 6월 30일(수) 세종문화회관
과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12월 11일



김태련 동창

(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뮤지컬 <작은 아씨
들>에 전국의 다자녀·다문화가족을 초청하는 활
동을 시작으로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
정이다. 또한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은 10월 19일
(화)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인구정책센터
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
기로 했다.

김선진(국문 66) 동창

김선진 동창이 시집『몽환의 다리에서』로 제37회
윤동주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한국문인

김혜순(섬예 66) 동창

2021년 11월 19일(금)부터 20일
(토)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얼쑤
마루 공연장에서 열린 국립무형
유산원 창제작 브랜드 공연 <생
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에 출



김혜순 동창

연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매듭
장 김혜순 동창은 공연의 2막에 나와 실을 감고,
끈을 맺고 풀어 매듭으로 엮어 내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이번 공연은 장인의 작업을 공연화한 최
초의 작품으로 '공예에서 공연으로' 전환된 장르
를 뛰어넘은 파격적인 시도였다.

서정숙(약학 74) 동창

쿠키뉴스가 뽑은 '2021 입법 우
수의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인 서정숙
동창이 선정됐다. 서정숙 동창
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정숙 동창

정선진(동양 74) 동창

정선진 동창이 2021년 10월 1일(금)부터 9일(토)

까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갤러리 룰랑에서 개인전 '사계의 연'을 열었다. 정선진 동창은 사계절의 풍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비발디의 사계처럼 작품에 담아내었다.



정선진 동창

이주영(영문 75) 동창

남촌재단 고문인 이주영 동창이 2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여 2021년 12월 1일(수)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금은 협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남촌장학금'과



이주영 동창

고 유희경(가사 41) 동창

2021년 5월 30일(일)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고 유희경 동창은 모교 가정대학 학장, 한국의류학회 초대회장, 문화재청 전통복식부문 문화재 위원, 복식문화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전통복식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0월 21일(목) 전통복식 연구자 고 유희경 동창이 '2021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유희경 동창

고 김영정(영문 50) 동창

2021년 11월 22일(월) 향년 92세로 별세하였다. 고 김영정 동창은 1954년부터 모교 사학과 교수,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초대 소장,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냈다. 제12대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흔 폐지' 등이 담긴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앞장섰다. 1988년 정무제2장관에 발탁되었으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초대 위원을 지냈다.



김영정 동창

고 이병림(가정 55) 동창

2021년 10월 15일(금) 향년 90세를 일기로 소천하였다. 고 이병림 동창은 모교 가정관리학과 교수(1958~1996)로 재직하였고, 사무처장(1981), 부총장(1992)을 역임하였다. 또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제9대 총동창회장을 맡아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1998년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이병림 동창

고 심현숙(사복 62) 동창

2021년 11월 5일(금) 별세하였다. 고 심현숙 동창은 사회복지사로서 Children's Home Society & Family Services(CHSFS)를 통해 1만 3,000여 명의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도왔다. 그의 30여 년의 활동을 인정받아 the Civil Merit Award (1986), the Friend of Children Award(2003) 등 많은 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미네소타 한인회 회장으로도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에 힘을 쓴았다.



심현숙 동창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이화 2030+ 발전 기금'으로 각 1억 원씩 전달됐다. '남촌장학금'은 이번 기부로 누적 총액 10억 원을 돌파하였다.

윤덕경(무용 76) 동창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 시리즈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의 2021년 우수공연 작품으로 선정된 윤



윤덕경 동창

덕경무용단의 <아리랑 Factory, 기쁨도 슬픔도 넘치지 않고>가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5시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한편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이하 장문원) 이사장 윤덕경 동창은 장문원 2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화려한 외출: 지금 우리는 누구일까? – 아트스틱 랩과 심포지엄>을 영국의 Stopgap Dance Company와 협업하여 11월 3일(수)부터 6일(토)까지 이음센터 이음아트홀에서 개최하고 줌(Zoom)을 통해 온라인 동시 중계를 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2021 락토 댄스 프로젝트' 선정 공연 'Living History of Dance in Korea'에서 윤덕경 동창의 안무작 <밤의 소리>를 11월 15일(월) 두리춤터에서 공연했다.

이현숙(사학 81) 동창

2015년 한국생태환경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숙 동창은 2021년 11월 13일(토) '11세기 동아시아의 기후변동과 자연재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최근 학회에서 발간하는 《생태환경과 역사》학술지가 연구재단의 등재후보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채성숙(동양 82) 동창

2021년 10월 14일(목)부터 24일(일)까지 서울시 종

로구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Lines'를 열었다. 채성숙 동창은 매우 얇은 선들을 빼곡히 채워가면서 화면 전체를 장악했고, 선의 굴곡진 놀림인 동양화의 준법과 모더니즘 추상 회화가 서로 얹혀 이룬 작품을 선보였다.



채성숙 동창

고영림(불문 84) 동창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고영림 동창이 2021년 11월 12주년을 맞이한 제주프랑스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고영림 동창은 제주를 유럽 영화제의 허브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2020년부터는 제주의 삶을 품은 일 노래를 상설 공연장에 올리며 옛 문화 지킴이로 앞장서고 있다.



고영림 동창

이인혜(서양 84) 동창

이인혜 동창은 개인전 '애도 1948, 치유와 해원의 시작'을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예술마루 내 장도전시실에서 2021년 10월 22일(금)부터 11월 14일(일)까지 열었다. 출품작 90점 중 70점이 여수 지역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담아내 역사 를 기억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인혜 동창

이지호(서양 84) 동창

전남도립미술관 초대 관장인 이지호 동창은 2021년 9월 1일(수)부터 11월 7일(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한국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 전을 열었다. 또한 'AES+F. 길잃은 혼종 시대를 같다' 전을 9월 3일



이지호 동창

(금)부터 12월 26일(일)까지 열었다.

정경혜(제약 84) 동창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정경혜 동창이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의 고도화 사업의 하나인 평생교육 강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약국실습 가이드를 제작하여 약학대학 학생들의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전국 프리셉터와 실습 학생들에게 배포했으며, 사이버연수원에 프리셉터 교육 강좌를 탑재해 실무실습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동창은 중앙대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경혜 동창

당하는 전국 프리셉터와 실습 학생들에게 배포했으며, 사이버연수원에 프리셉터 교육 강좌를 탑재해 실무실습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동창은 중앙대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영희(약학 84) 동창

2021년 11월 6일(토)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여대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조영희 동창

김홍식(서양 85) 동창

카메라 뷰 파인더를 통해, 작품 그 자체보다는 작품을 바라보는 군중을 포착하는 작가 김홍식 동창이 2021년 11월 25일(목)부터 2022년 3월 12일(토)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갤러리 로얄에서 개인전 'Red_감각의 논리: 감각적 사유로부터의 이야기'를 열었다.



김홍식 동창

정경미(서양 85) 동창

2021년 10월 3일(일)부터 11월 4일(목)까지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에 위치한 필름포럼 갤러리에서 '흘려보내는 자: 영원의 돌림노래' 전을 개최하였다. 정경미 동창은 '노래'의 형태가 지니는 파급력을 통해 생명에 대한 관람자의 감각적 경험을 보다 증폭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선보여왔다.



정경미 동창

제4회 이화컬트전

2021년 10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모교 조형예술대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제4회 이화컬트전이 개최되었다. 58학번부터 04학번까지 다양한 학과 출신의 모교 동창들이 컬트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모여 201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전시회를 가지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취소되어 2021년에 4회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 '자화상'이라는 공통 주제의 이번 전시에 참여한 동창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고은경(물리 86), 김경애(성악 79), 김경주(화학 86), 김만애(의학 66), 김미라(교공 86), 김미란(교대원 87), 김순희(수학 78), 김은수(디자인 91), 김춘미(무용 84), 김현아(생미 90), 박영애(교육 68), 배은미(섬예 79), 서희성(식영 91), 송영선(간호 71), 신현정(커미부 97), 유명자(신대원 06), 정영주(교공 81), 조근미(섬예 79), 최명선(생명 77), 최윤정(유교 92), 최은령(영문 85), 허순희(유교 77), 현혜정(생미 89), 홍동희(생미 89), 홍한이(융보 85), 황미선(섬유디자인).



정정엽(서양 85) 동창

2021년 8월 26일(목)부터 10월 31일(일)까지 아트센터 화이트플렉에서 개인전 '걷는 달'을 열었다. 정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동시대를 사는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 주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11월에 <MMCA 작가와의 대화-정정엽 작가> 영상을 완성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정정엽 동창

구 소재 경인미술관 제 6전시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과 정겨운 일상의 모습을 수묵담채로 화폭에 담았다.



김복만 동창

조은정(서양 85) 동창

미술사학자이며 비평가로 활동하며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조은정 동창은 여성의 배울 권리와 인권을 주장한 '여권통문' 선언 123주년을 맞아 '여권 통문의 날 기념전'을 기획, 전시하였다. 전시는 2021년 9월 1일(수)부터 7일(화)까지 서울 토포하우스에서 열렸다. 또한 9월 3일(금)부터 10월 9일(토)까지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대왕과 음악, 여민락' 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인터넷 전시와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조회수 1만 회가 넘으며 각광을 받았다.



조은정 동창

김신자(서양 86) 동창

김신자 동창은 '행복한 나무, 마을을 담다' 전을 2021년 9월 3일(금)부터 13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갤러리 바움에서 가졌다. 김신자 동창의 작품에서 나무는 작은 집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집과 가정 그리고 생명성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다.



김신자 동창

동소신(서양 86) 동창

2021년 9월 24일(금)부터 10월 4일(월)까지 서울 갤러리 바움에서 '기쁜 우리 젊은 날' 이란 명제로 개인전을 하였다. 동소신 동창은 작가를 둘러싼 환경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풀어냄으로써 인생을 성찰하는 작품들을 보여 주었다.



동소신 동창

최정은(약학 85) 동창

최정은 동창이 2021년 10월 1일(금) 압타머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및 진단기기 개발 바이오 기업 압타머사이언스(Aptamer Sciences)에 전무로 영입되었다. 최정은 동창은 임상 개발 전문가로 보령제약, JW중외제약, 카이노스메드 등에서 임상 개발 총괄 및 품목 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최정은 동창

박정란(동양 86) 동창

2021년 11월 10일(수)부터 16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갤러리 루벤에서 개인전 'CO·EXIST 함께 존재하기'를 열었다. 박정란 동창은 작품을 가로로 또는 세로로 칼로 그어 내리고, 그렇게 해체된 것을 다시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내어 합체한다. 해체와 합체는 공존(co-exist)하며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박정란 동창

김복만(동양 86) 동창

2021년 11월 10일(수)부터 16일(화)까지 서울 종로

송은주(서양 86) 동창

하늘을 주제로 꾸준한 작업을 보여 주고 있는 작가 송은주 동창이 2021년 9월 30일(목)부터 10월 10일(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Sky Literacy'를 열었다. 스카이 리터러시는 하늘을 미학적으로 읽어내고, 나아가 삶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며, 온몸으로 하늘을 표현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송은주 동창

원숙연(행정 86) 동창

원숙연 동창이 2021년 10월 28일(목) 열린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익대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원숙연 동창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모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원숙연 동창

이행옥(가관 86) 동창

2021년 7월 1일(목)자로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학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이행옥 동창은 강릉원주대학교에 1990년에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과장,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양성평등추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교수회 위원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한국가족관계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행옥 동창

박은혜(작곡 87) 동창

모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은혜 동창은 2021년 10월 26일(화)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정



송은주 동창

기연주회 초청 – 제14회 박은혜 작곡 발표회'를 서강대 메리홀에서 'Emphusao(성령을 받으라)'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박은혜 동창

이진숙(무용 87) 동창

무용 전문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숙 동창이 4번째 개인 사진전 '아리랑 공감(The Story of Arirang)'을 2021년 10월 12일(화)부터 17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갤러리 더플러스에서 개최했다.



이진숙 동창

윤선흥(동양 88) 동창

2021년 11월 23일(화)부터 12월 7일(화)까지 서울시 청담동 갤러리 두에서 개인 초대전 '풍요로운 성장 식물원, 유유자적'을 열었다.



윤선흥 동창

김경희(커미부 89) 동창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희 동창이 2021년 10월 16일(토) 제48대 한국언론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여성 학회장은 언론학회 63년 역사상 두 번째다. 김경희 동창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선주(서양 89) 동창

인사동 블루원갤러리에서 2021년 10월 26일(화)부터 11월 16일(화)까지 <행福예감>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하였다. 자아의 감정 변화를 의자에 담아 자신만을 위한 안락함을 희망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김선주 동창

나은정(동양 89) 동창

2021년 10월 13일(수)부터 10월 19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M에서 개인전 'Nature & Another View'을 열었다. 나은정 동창은 시간과 계절, 날씨, 혹은 주변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자연의 인상들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은정 동창

박가나(서양 89) 동창

박가나 동창이 10월 15일(금)부터 22일(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박가나 동창의 작품은 자연의 신비를 색에 담아 팬데믹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주고 있다.



박가나 동창

이보경(동양 89) 동창

2021년 10월 5일(화)부터 10월 30일(토)까지 갤러리 아트세빈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기억의 가장자리'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자아성찰이나 치유, 회복의 과정을 색을 통한 역설적인 추상화 작품으로 승화시켜 선보였다.



이보경 동창

최내경(불문 89) 동창

최내경 동창이 소장으로 있는 서경대 한불문화예술연구소는 김유정문학촌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설 「동백꽃」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2022년 프랑스에서 출간 한다. 한불문화예술연구소는 번역을 통해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한편 박진숙 매실보육원장(심리 58, 제1회



최내경 동창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자)의 딸인 최내경 씨가 담당자로 있는 매실보육원은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매실보육원은 아동들의 사회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문의: 051-895-7569, www.maishilwon.org).

한여옥(서양 89) 동창

2021년 10월 29일(금)부터 11월 3일(수)까지 혜화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각 계절마다 목격한 풍경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들이나 기후와 조응하는 소재들에 비중을 두며 소박한 필치로 밀도 높게 화면에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여옥 동창

원영은(조소 90) 동창

2021년 10월 1일(금) 인사동 산촌 갤러리에서 제11회 개인전을 열었고, 11월 4일(목)부터 개최된 '인천아시아아트쇼'에서 개인부스전을 가졌다. 또한 한중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영사관의 초청으로 청도에서 열리는 '한중명인예술전'에서 작품 '스위밍에고 황후의 꿈'을 전시 중이다. G-art 페이스북 분과위원장으로 역임하였으며, 저서로 시화집『스위밍에고』가 있다.



원영은 동창

이소영(특교 90) 동창

미국 텍사스공과대학교(TTU) 언어병리학과 종신교수로 재직 중인 이소영 동창이 Asia Pacific Society of Speech Language Hearing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



이소영 동창

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소영 동창은 2014년 TTU에서 Distinguished Research Award를 수상하였고, 2019년 미국 국무부 Fulbright US Scholar로, 2021년 모교 대학원 동창회 50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문(연구부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주연(동양 90) 동창

2021년 9월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강호갤러리에서 개인전 ‘부조적 조형구조(Relief Formation Structure)’를 열었다. 이 동창은 평면의 공간에 입체적인 구조를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주연 동창

신동희(과교 91) 동창

모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신동희 동창이 2021년 10월 22일(금) 전남 해남군청에서 개최된 한국지구과학회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지구과학회는 전국 지구과학 연구자·교사 1,500여 명이 소속된 단체로 1965년 발족하였으며, 신동희 동창이 첫 여성 회장이다.



신동희 동창

이혜정(동양 91) 동창

2021년 9월 29일(수)부터 10월 2일(토)까지 모교 대산갤러리에서 개인전 ‘Light & Space’를 열었다. 이 동창은 자신을 빛과 공간이라는 곳에 공존하는 무형적 실체로 해석하여 그 빛과 공간에서의 공존과 교류를 감각적으로 표출했다.



이혜정 동창

정재은(서양 91) 동창

2021년 11월 10일(수)부터 27일(토)까지 서울 종로

구 사직동 최정아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소복소복(召福召福)’을 가지고, 〈모란도〉, 〈책가도〉 등 18점을 선보였다.

김경원(동양 92) 동창

2021년 10월 31일(일)부터 11월 7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 ‘2021년 마니프 서울 국제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김경원 동창

이숙자(무용 92) 동창

한국무용가 이숙자 동창이 2021년 11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가 되었다.



이숙자 동창

이희자(무용 92) 동창

이희자 동창이 단장으로 있는 리을무용단이 2021년 9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제36회 정기공연 〈내딸내미들 II〉를 공연했다.



이희자 동창

이희준(약학 92) 동창

이희준 동창이 극본을 쓴 작품들이 다수 무대에 올랐다. 2021년 9월 12일(일)부터 12월 5일(일)까지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2관에서 〈V 에버 에푸터〉, 9월 15일(수)부터 12월 5일(일)까지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1관에서 〈미인: 아름다운 이곳에〉, 10월 3일(일)부터 17일(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다원영 악의기원〉이 공연되었다.



이희준 동창

임소연(정외 92) 동창

다큐멘터리 BOM의 대표 임소연 동창이 다큐멘터리 〈내 인생의 DMZ〉를 제작하였다. 〈내 인생의

DMZ〉는 탈북 청년과 독일 탐험가의 이야기를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로 OBS경인TV에서 2021년 9월 25일(토), 26일(일)에 방영되었다.



임소연 동창

최문선(서양 92) 동창

감각적인 형태의 무화과를 통해 순수한 조형미를 추구해온 최문선 동창의 여섯 번째 개인전 'PURPLE RAIN 3'가 2021년 10월 4일(월)부터 30일(토)까지 Gallery1707에서 열렸다. 부제 '그 작은 열매는 이렇게 숲이 되었다'로 과육에 박힌 작은 씨앗들이 지닌 생명성을 표현하였다.



최문선 동창

박인원(독문 93) 동창

제19회 '한국 문학 번역상'에 박인원 동창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인원 동창이 수상한 작품은 소설가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독일판 『Aufzeichnungen eines Serienmörders』)으로 '탁월한 문체로 독일어권 독자들을 사로잡았다'는 평과 함께 2020년 2월 현지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박인원 동창

서은애(동양 93) 동창

2021년 10월 26일(화)부터 11월 8일(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갤러리 도스에서 개인전 '오늘도 안녕히:'를 열었다.



서은애 동창

손미정(무용 93) 동창

한국무용가 손미정 동창은 2021년 9월 10일(금)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대한민국무용 대상 본선에서 안무작 〈樂—살아 있는 심혼을 위하여〉를 공연했다. 또한 9월 12일(일)부터 13일(월)까지 작품전 〈춤사람 그리고 기억의 단상〉에서 〈여울〉, 〈비상〉 두 작품에 출연했고, 〈편린(片鱗)〉을 안무하고 출연했다.



손미정 동창

박에스더(특교 94) 동창

2021년 5월 28일(금)에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회의실에서 박에스더 동창이 특수교육 부문에서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였다. 박에스더 동창은 25년 동안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홀트학교에 근무하면서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여 음악을 통한 장애 학생 교육에 헌신해 왔다



박에스더 동창

제17회 이화성악회 정기 연주회

2021년 11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제17회 이화성악회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모교 성악과 동창회 후원으로 열린 이 연주회에서 이현숙(성악 81)·고혜영(성악 95)·한나형(성악 96)·신승아(성악 98)·최정윤(성악 02)·김보경(성악 03)·김태은(성악 03)·박수지(성악 11) 동창이 공연하였다(피아노: 정영하(피아노 92) 동창).



이상영(섬예 94) 동창

2021년 11월 16일(화)부터 21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 사이아트 도큐멘트의 선정작 가로 발탁되어 ‘미완의 유토피아_조우(The Unfinished Utopia_Mind—Coming Across)’ 개인전을 열었다. 이상영 동창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소화하며 수행하는, 생각이 머무는 장소로 기와집 지붕들이 수없이 중첩된 미완의 유토피아를 가시화하였다.



이상영 동창

김수정(무용 96) 동창

이스라엘 키부츠 현대무용단에서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는 김수정 동창이 직접 안무한 솔로 춤 <케렌시아>와 <전염> 두 편을 서울세계무용제에 초청돼 2021년 10월 27일(수)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이지은(조소 97) 동창

이지은 동창이 김종영미술관 오늘의 작가로 초대되어 2021년 9월 10일(금)부터 10월 31일(일)까지 ‘소멸을 두려워하는 태도’ 전시를 김종영미술관 신관 1,2,3층에서 개최했다.



이지은 동창

도로시엠윤(윤미연·조소 98) 동창

2021년 11월 3일(수)부터 14일(일)까지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의 융합지원사업의 후원으로 AR(증강현실), 아바타와 메타버스의 기술을 활용한 개인전 ‘44개의 색동요술봉과 색동아우라Ⅱ’를 연남동에 위치한 화인페이퍼 갤러리에서 선보였다.



도로시엠윤 동창

이재민(장미·패션전공 00) 동창

2021년 9월 23일(목)부터 9월 27일(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Body(신체)-Skin(표피)-Environment(환경)’ 展을 개최하였다. 현대 패션 이 신체와 표피, 환경을 중심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을 전시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이재민 동창

김지은(의학 02) 동창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은 동창이 2021년 10월 30일(토) 개최된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다기관 기획 연구자상’을, 11월 13일(토)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에서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김지은 동창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 염증성신경병증을 비롯한 신경근육질환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지은 동창

이오성(동양 02) 동창

2021년 10월 28일(목)부터 11월 7일(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On The Way Home’을 열었다. 작가는 지상 세계를 살롱의 땅으로 기술하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 변화될 세상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피력하였다.



이오성 동창

손혜경(조소 03) 동창

2021년 9월 3일(금)부터 10월 7일(목)까지 손혜경 동창의 개인전 ‘물질과 물질’이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태원의 아마도



손혜경 동창

예술공간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 11월 11일(목)부터 21일(일)까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머티리얼리즘'이라는 전시를 개최하였다.

진민욱(동양 03) 동창

2021년 10월 19일(화)부터 11월 14일(일)까지 인천 연수구 인천 도시역사관 소암홀에서 개인전 'INTERLUDE'를 열었다. 진민욱 동창은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 의 마음에 쉼을 주기 위해 기획 된 2021년 인천도시역사관의 '도시를 보는 작가' 전 세 번째 작가로 선정되었다.



진민욱 동창

손서현(서양 06) 동창

2021년 11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셀로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 최근에는 초기작 총 3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NFT아트(각 작품의 에디션은 최대 20개로 한정)도 선보였다.



손서현 동창

이보영(서양 08) 동창

재독 공연연출가 이보영 동창이 독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 자리한 대안문화공간 '나르겐트 보'에서 코로나19 이후 불거진 인종 차별을 주제로 삼은 실험극 <칭창총 소나타 1번>을 세 차례 공연하였다. 이보영 동창이 기획과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한·중·독 청년 예술가 12명이 협업한 실험극 프로젝트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적 요소를 망라했다.



이보영 동창

박 진(의학 09) 동창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진 동

창이 2021년 11월 13일(토)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SK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SK 젊은 연구자상은 대한민국 신경과학의 발전 및 지평 확대에 앞장서는 젊은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진 동창

김수진(서양 14) 동창

김수진 동창의 애니메이션 <잊혀지지 않는(Unforgotten)>이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AMPAS)가 주관하는 제48회 학생 아카데미상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잊혀지지 않는>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의 기억과 극복의 의지를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형상화하였다.



김수진 동창

김솔이·박해란(특교 17) 동창

현직 특수교사로 재직 중인 김솔이·박해란 동창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최하고 교육부에서 후원하는 '2021년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대상(교육부장관)을 수상하였다.



김수진 동창

김영지(대학원 19) 동창

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지 동창이 2021년 11월 11일(목)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1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1)'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동창은 북한이탈주민 창업 및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분야를 선도하고, 기업가정신 콘텐츠를 통해 대학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창이 펴낸 새책



청계 이영인 작품집 (淸溪 李英仁 作品集)

이영인(사학 65)

이영인 지음

서예가로 활동 중인 이영인 동창이 그동안 작업한 서예와 매듭 작품을 수록한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고연희(영문 68)

고연희 엮음 / 윤주사

고연희 동창이 영한 대역 사찰 가이드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을 펴냈다. 다년간 외국인에게 사찰 안내를 한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물고 답하는 형식으로 불교의 기본 가르침, 법당과 장엄물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꽃이어라!

한기정(특교 75)

한기정 지음 / 문학관

시인이자 수필가인 한기정 동창이 에세이집 「꽃이어라!」를 발간하였다. 「꽃이어라!」는 「조출한 축배로」, 「발을 적시며」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17회 구름카페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오노레 드 발자크, 세기의 창조자

송기정(불문 80)

송기정 지음 / 페피퍼로드

송기정 동창이 「오노레 드 발자크, 세기의 창조자」를 출간했다. 지난 30년간 발자크를 연구하고 번역하고 강의한 송 동창은 이 책에서 작가의 이중성과 허위의식에 집중하며, 거대한 '발자크 월드'를 촘촘히 탐구한다.



라인강에 뜨는 무지개

유한나(최소은·독문 81)

유한나 지음 / 선우미디어

유한나 동창이 수필집 「라인강에 뜨는 무지개」를 발간하였다. 4부로 구성된 수필집에는 47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한편 유한나 동창은 2021년 10월에 사집 「라인강의 둑단배」 및 시 「어떤 용돈」으로 제13회와 제14회 민초

해외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루이 비방, 화가가 된 파리의 우체부

박혜성(서양 86)

박혜성 지음 / 한국경제신문

박혜성 동창이 독학으로 늦은 나이에 미술에 입문한 소박파 화가 루이 비방(Louis Vivin, 1861~1936)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박혜성 동창은 「어쨌든 미술은 재밌다», 「뉴욕현대 미술관」의 저자이다.



한국 엔지니어의 형성과 발전

한경희(물리 90)

한경희 지음 / 들판

한경희 동창이 엔지니어에 관한 사회적 탐구이자 담론을 담은 책 「한국 엔지니어의 형성과 발전」을 출간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란 누구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역사적 흐름을 조망하고 과학기술사회학 관점에서 분석한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20.12.29~2021.12.28

인문과학대학	최재명(66) 1,000,000	이영옥(92) 1,000,000	도예과	유경희(83) 1,000,000	김현원(94) 1,000,000
국어국문학과	한인영(72) 1,000,000		허태숙(91) 3,000,000	이은영(91) 3,000,000	
정미정(89) 1,000,000	이화수(77) 1,000,000	음악대학		수학교육과	악학대학
중어중문학과	이유림(91) 3,000,000	피아노과	체육대학	신경희(77) 1,000,000	악학과
김언주(85) 1,000,000	조상미(94) 1,000,000	이승희(87) 1,000,000	체육과	이 란(89) 1,000,000	김순영(62) 1,000,000
안영호(85) 1,000,000	심리학과	이영은(91) 3,000,000	이영란(76) 1,000,000	김아영(91) 3,000,000	김용재(82) 1,000,000
이주연(88) 1,000,000	이지영(89) 1,000,000	관현악과	김양례(91) 3,000,000	융합보건학과	남혜숙(82) 1,000,000
이승신(91) 3,000,000	염현경(89) 1,000,000	유명숙(85) 2,000,000	무용학과	전신자(86) 100,000	박병희(84) 1,000,000
영어영문학과	홍경화(89) 1,000,000	류예행(88) 1,000,000	손경순(77) 1,000,000	최은진(89) 1,000,000	양현주(91) 3,000,000
성혜숙(70) 1,000,000	이미재(91) 3,000,000	구본희(91) 3,000,000	이명경(77) 2,000,000		제약학과
이경숙(70) 2,000,000		성악과	한명옥(79) 1,000,000	법대·법전원	김분래(83) 1,000,000
김혜숙(76) 1,000,000	자연과학대학	석정자(67) 1,000,000	김미경(81) 1,000,000	법학과	황은경(91) 3,000,000
방혜성(82) 1,000,000	수학과	이순희(91) 3,000,000	박영애(81) 1,000,000		
김태연(송은)(91) 3,000,000	김진미(83) 1,000,000	작곡과	조미송(81) 2,000,000	노정연(90) 1,000,000	생활환경대학
불어불문학과	조의주(86) 1,000,000	임 진(72) 1,000,000	전유오(84) 1,000,000	김권희(91) 3,000,000	가정관리학과
배윤경(87) 1,000,000	함지영(91) 3,000,000	김소진(91) 3,000,000	이연수(87) 1,000,000	태지영(92) 1,000,000	최혜순(75) 1,000,000
최내경(89) 2,000,000	권지혜(14) 1,000,000	종교율학과	윤수미(91) 3,000,000	김구슬(93) 1,000,000	김상희(81) 1,000,000
이선희(91) 3,000,000	물리학과	최은희(81) 1,000,000	사범대학	경영대학	김경숙(83) 1,000,000
독어독문학과	김경자(68) 1,000,000	오지영(88) 1,000,000	교육과	경영학과	서 진(91) 3,000,000
목승숙(91) 3,000,000	남상택(74) 1,000,000	송지선(91) 3,000,000	윤순희(65) 1,000,000	임선희(88) 1,000,000	의류직물학과
기독교학과	박승희(74) 1,000,000	김세운(99) 1,000,000	김세운(99) 1,000,000	홍나영(81) 1,000,000	
백소영(91) 3,000,000	황미란(84) 1,000,000	한국음악과	윤순희(65) 1,000,000	김선희(91) 3,000,000	
사학과	심금희(86) 1,000,000	양재희(80) 1,000,000	김영주(71) 1,000,000	윤은주(89) 2,000,000	
유영희(74) 1,000,000	이미경(86) 1,000,000	조형예술대학	이주연(91) 3,000,000	권수라(91) 3,000,000	
최지영(89) 2,000,000	이희숙(86) 1,000,000	동양화과	진복례(87) 1,000,000	강다영(10) 1,000,000	
고유경(91) 3,000,000	박종애(87) 3,000,000	이숙희(87) 1,000,000	유청옥(88) 1,000,000	식품영양학과	
사회과학대학	최은영(87) 1,000,000	박민숙(78) 1,000,000	합인자(88) 1,000,000	조영아(91) 3,000,000	
정치외교학과	신소영(88) 1,000,000	한승연(83) 1,000,000	방은정(91) 3,000,000	최봉순(69) 1,000,000	
성기영(91) 3,000,000	한미경(88) 1,000,000	김문주(89) 1,000,000	초등교육과	이은미(83) 1,000,000	
행정학과	서민야(91) 3,000,000	이혜정(91) 3,000,000	김광자(65) 1,000,000	조미숙(83) 1,000,000	
유선실(91) 3,000,000	조주온(97) 1,000,000	서양화과	임선희(88) 1,000,000	김주현(88) 1,000,000	
문현정보학과	화학과	백다임(86) 1,000,000	한승희(65) 1,000,000	오혜숙(78) 1,000,000	
조혜진(91) 3,000,000	석혜선(91) 3,000,000	안해리(91) 3,000,000	김평자(80) 1,000,000	심 현(80) 1,000,000	
커뮤니케이션디어학부	생명과학과	정승희(98) 1,000,000	태명화(91) 3,000,000	성시열(81) 1,000,000	대학원
김희준(91) 3,000,000	최명선(77) 1,000,000	조소과	교육공학과	임선영(82) 1,000,000	이향숙(88) 1,000,000
사회학과	박미향(89) 1,000,000	박신정(85) 1,000,000	권미경(87) 1,000,000	김태경(84) 1,000,000	정혜중(94) 1,000,000
신혜령(75) 1,000,000	안지현(91) 3,000,000	서해영(91) 3,000,000	정연정(91) 3,000,000	피상순(84) 1,000,000	
박순원(77) 1,000,000	공과대학	설유예술과	정승희(98) 1,000,000	김성희(87) 1,000,000	교育대학원
김은미(81) 1,000,000	컴퓨터공학과	오현아(91) 3,000,000	한은주(79) 1,000,000	한석아(91) 3,000,000	양수화(74) 1,000,000
엄명숙(83) 1,000,000	생활미술과	송윤경(91) 3,000,000	연태옥(85) 1,000,000	유경아(97) 1,000,000	정책대학원
이재완(84) 1,000,000	김정아(85) 1,000,000	장식미술과	이경순(88) 1,000,000	간호대학	김순옥(19) 1,000,000
팽경인(86) 1,000,000	김인정(87) 1,000,000	신영선(88) 1,000,000	김현민(89) 1,000,000	간호학과	
최성희(91) 3,000,000	장선영(89) 1,000,000	김에주(91) 3,000,000	전혜인(91) 3,000,000	조혜숙(76) 1,000,000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강성희(91) 3,000,000	영어영문학과	마윤미(84) 1,000,000	임경희(80) 1,000,000	송미경(18) 1,000,000
			장혜영(85) 1,000,000	변은경(83) 1,000,000	
			신자선(91) 3,000,000	천영주(83) 1,000,000	
			김세영(50) 1,000,000	최미선(91) 3,000,000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1~2021.12.28(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안정환(65) 300,000	임완숙(68) 300,000	이현주(88) 500,000	김세영(50) 1,000,000	양정자(64) 300,000
국어국문학과	유정자(65) 300,000	송호연(69) 300,000	증여증학과	김순자(55) 300,000	박명자(67) 300,000
김성자(61) 300,000	박영숙(67) 300,000	박희규(71) 300,000	박수현(08) 500,000	정소영(62) 300,000	엄은옥(67) 300,000
박미혜(64) 300,000	오원자(68) 300,000	최경희(77) 300,000	영어영문학과	유영애(63) 300,000	한수미(67) 300,000

송혜영(69) 300,000	이문숙(79) 300,000	정춘희(71) 300,000	박효정(90) 300,000	전진오(71) 500,000	경영대학
정성희(69) 300,000	김미령(80) 300,000	배경화(74) 300,000	설유예술과	김혜련(73) 300,000	경영학과
김영옥(70) 300,000	정민재(81) 300,000	김정원(76) 300,000	이현주(83) 300,000	노정숙(74) 300,000	김영선(78) 300,000
박지화(70) 300,000	문화정보학과	석지수(12) 500,000	김로아(87) 500,000	특수교육과	고혜경(80) 300,000
성혜옥(70) 300,000	홍승진(65) 300,000	생명과학과	김성희(89) 300,000	한은주(79) 300,000	홍순경(80) 300,000
양연수(70) 300,000	윤소영(73) 300,000	류 우(60) 300,000	김명임(63) 500,000	김태연(89) 300,000	강명화(83) 300,000
이경숙(70) 300,000	노경석(75) 300,000	김문자(65) 300,000	장유근(67) 300,000	채명숙(92) 500,000	나민경(98) 500,000
최선열(70) 3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이혜숙(67) 300,000	신수연(69) 300,000	영어교육과	조유진(09) 500,000
이승신(72) 300,000	장명수(64) 300,000	한진순(70) 300,000	계기원(69) 300,000	국제사무학과	
장 선(72) 300,000	한명미(67) 300,000	조애현(74) 300,000	강규선(75) 300,000	조계숙(73) 300,000	
김희자(76) 300,000	홍인화(80) 300,000	조가현(09) 500,000	이미숙 300,000	이광희(74) 300,000	
유의순(76) 300,000	사회학과		조미연 300,000	김지혜(92) 500,000	
이정숙(77) 300,000	김덕신(66) 300,000	공과대학	장식미술과		
김남민(78) 300,000	유혜향(66) 300,000	컴퓨터공학과	정희승(73) 300,000	외국어교육과	
이명실(78) 300,000	민순기(70) 300,000	조호경(87) 500,000	김승연(88) 500,000	이혜완(69) 300,000	의과대학
문영희(79) 300,000	문명재(77) 300,000	환경공학과	도예과	사회과교육과	의학과
이해남(79) 300,000	박순원(77) 300,000	전유진(16) 500,000	최재원(84) 300,000	이선희(61) 300,000	송예완(59) 300,000
김종유(80) 300,000	서동선(77) 300,000	건축학부	민태희(70) 300,000	박보훈(60) 300,000	박보훈(60) 300,000
김동숙(81) 300,000	김정희(82) 300,000	심미혜(09) 500,000	서정희(70) 300,000	이용옥(60) 300,000	이용옥(60) 300,000
명선영(92) 500,000	김우진(08) 500,000	음악대학	체육대학	남소자(66) 300,000	
김동연(93) 500,000	사회복지학과	기악과	체육과	구경혜(71) 1,000,000	
이승은(94) 500,000	오명자(65) 300,000	한인영(72) 300,000	방봉세(51) 300,000	김명희A(71) 300,000	
박지희(07) 500,000	이정자(74) 300,000	윤연경(49) 300,000	김정자(56) 300,000	김영주(71) 300,000	
송세일(09) 500,000	이정자(74) 300,000	최승현(63) 300,000	서희경(69) 300,000	김옥영(71) 300,000	
김민경(16) 500,000	이화수(77) 300,000	정청자(64) 300,000	이숙원(70) 300,000	노현숙(71) 300,000	
불어불문학과	조명희(77) 300,000	김기순(66) 300,000	윤남숙(72) 300,000	이선희(71) 300,000	
허영자(62) 3,500,000	박영애(79) 300,000	조정진(67) 300,000	박경실(78) 300,000	이율숙(71) 300,000	
조귀연(65) 300,000	정유선(02) 500,000	홍영주(68) 300,000	김양례(91) 500,000	장세화(71) 300,000	
임재문(67) 300,000	실리학과	나효선(70) 300,000	무용학과	전혜영(71) 300,000	
이원옥(68) 300,000	이은실(60) 1,300,000	피아노과	조수형(70) 300,000	정봉식(71) 300,000	
임순영(70) 300,000	남영자(71) 300,000	우숙영(87) 500,000	허명화(70) 300,000	조태순(71) 300,000	
강미영(72) 300,000	신현숙(71) 300,000	남영화(91) 500,000	이경신(72) 300,000	최필녀(71) 300,000	
김영혜(77) 300,000	송혜숙(73) 300,000	백진영(91) 500,000	이명경(77) 500,000	최 환(71) 300,000	간호대학
배혜화(77) 300,000	김정애(76) 300,000	이선령(91) 500,000	김경주(80) 300,000	이인숙(72) 300,000	간호학과
이구숙(81) 300,000	강순원(80) 300,000	이지영(91) 500,000	김서명(89) 500,000	성효현(78) 300,000	
독어독문학과	한성엽(82) 300,000	채성내(92) 500,000	김민정(90) 500,000	송선희(78) 300,000	김 계속(70) 300,000
민용자(67) 300,000	이현승(93) 500,000	송해영(96) 500,000	정가희(19) 500,000	손혜경(80) 500,000	이남희(70) 300,000
오영란(67) 300,000	장서희(01) 500,000	관현악과	사법대학	손혜경(80) 500,000	박혜주(75) 300,000
이숙경(68) 300,000	경제학과	유인숙(75) 300,000	교육학과	부운령(81) 300,000	
이금숙(69) 300,000	박민정(02) 500,000	서봉숙(77) 300,000	생약과	김방희(85) 500,000	
추해경(71) 300,000	자연과학대학	생약과	호재숙(49임) 300,000	손희경(88) 500,000	
유동신(74) 300,000	수학과	이혜자B(65) 300,000	사지숙(55) 300,000	손희경(88) 500,000	
임병희(74) 300,000	이영애(68) 300,000	이인숙(68) 300,000	한임순(59) 300,000	송옥자(66) 300,000	하영수(75) 300,000
이은주(82) 300,000	민경자(63) 300,000	이정숙(68) 300,000	오춘란(61) 300,000	손지현(89) 500,000	이정란(81) 300,000
최상민(다경)(03)	최길남(70) 300,000	진영미(75) 300,000	김신지(68) 300,000	조소현(95) 500,000	유미경(01) 500,000
500,000	노선숙(79) 300,000	성주연(20) 500,000	장예순(68) 300,000	조소현(95) 500,000	송사라(20) 500,000
기독교학과	조은희(81) 300,000	종교음악과	이상희(72) 300,000	수학교육과	약학대학
김미순(75) 300,000	함지영(91) 500,000	채문숙(74) 300,000	채문숙(74) 300,000	신경희(77) 300,000	약학과
최수현(92) 500,000	통계학과	방명주(73) 300,000	노경희(77) 300,000	조은숙(82) 300,000	문은선(49) 300,000
사학과	유시내(96) 500,000	오지영(88) 500,000	이선숙(74) 300,000	융합보건학과	이향구(50) 300,000
임계순(67) 300,000	이해은(00) 500,000	한국음악과	박영숙(81) 300,000	장점숙(69) 300,000	배복희(55) 300,000
오영옥(68) 300,000	유선희(04) 500,000	양재희(80) 300,000	이유형(89) 500,000	이수연(70) 300,000	이정란(57) 300,000
오옥환(68) 300,000	물리학과	이수진(16) 500,000	박영숙(81) 300,000	박경희(74) 300,000	문예란(58) 300,000
임지향(68) 300,000	도혜정(62) 300,000	통교음악과	이정희(85) 300,000	김영길(60) 300,000	
전진순(68) 300,000	안웅학(70) 300,000	방명주(73) 300,000	장예순(68) 300,000	이도선(60) 300,000	
유재옥(74) 300,000	남상택(74) 300,000	조형예술대학	이미숙(68) 300,000	김동선(61) 300,000	
주혜련(77) 300,000	이재화(75) 300,000	동양화과	임형란(71) 300,000	이미래안(55) 300,000	
박기옥 300,000	이경희(88) 500,000	강미연(74) 300,000	문경숙(74) 300,000	김준숙(61) 300,000	
불 명 300,000	박수산(91) 500,000	박성희(86) 500,000	차명희(66) 500,000	차명희(66) 500,000	
사회과학대학	이수영(93) 500,000	서양화과	김세향(74) 300,000	안혜성(61) 300,000	
정치외교학과	서정은(08) 500,000	이정수(03) 500,000	조진영(77) 300,000	전효숙(73) 300,000	
구혜정(71) 300,000	이소윤(10) 500,000	조소과	김준희(67) 300,000	전성희(61) 300,000	
	화학과	표귀명(81) 300,000	교육공학과	박은정(61) 300,000	
			김준희(67) 300,000	윤수영(07) 500,000	

황민자(64)	300,000	임형순(73)	300,000	제약학과	이숙현(67)	300,000	김광옥(75)	300,000	정책대학원	
김화자(65)	300,000	김유현(75)	300,000	유선희(85)	500,000	최순자(68)	300,000	황은주(75)	349,534	
서인도(65)	300,000	이복희(75)	300,000	문미란(93)	500,000	김진원(75)	300,000	최진자(80)	300,000	
송연자(65)	300,000	정용희(75)	300,000	전수경(94)	500,000	자영서(80)	300,000	전보신(81)	300,000	
유희열(65)	300,000	박명순(78)	300,000	서은영(99)	500,000	임주희(93)	300,000	조미숙(83)	300,000	
이정자(66)	300,000	민명수(79)	500,000	최지영(08)	500,000	한정희	300,000	한정희	300,000	
안규형(67)	300,000	이정자(81)	300,000	의류직물학과	이명희(70)	300,000	국제학부	김보혜	300,000	
김덕길(69)	300,000	김화연(82)	300,000	생활환경대학	정혜순(71)	300,000	국제학과	박인숙	300,000	
박성숙(69)	300,000	이선희(82)	300,000	가정학과	우미령(77)	300,000	교육대학원	윤혜원	300,000	
정인숙(69)	300,000	함임주(82)	300,000	경순옥(59)	300,000	이선옥(69)	300,000	이영주	300,000	
변진희(70)	300,000	강인숙(83)	300,000	박정희(62)	300,000	박예경(63)	300,000	이혜재	300,000	
정순자(70)	300,000	안소영(83)	500,000	송지은(01)	500,000	이갑희(66)	500,000	불명	500,000	
박영자(71)	300,000	김은미(86)	500,000	김정연(70)	300,000	김태연(70)	300,000	불명	300,000	
이주재(71)	300,000	김승희(88)	500,000	김대순(68)	300,000	김태연(70)	300,000	유지선(18)	500,000	
고명순(72)	300,000	유별내(02)	500,000	김성립(68)	300,000	박진자(71)	300,000	사회복지대학원		
박정아(72)	300,000	권한비(21)	500,000	가정관리학과	강종은(74)	300,000	강종은(74)	3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1.1~2021.12(과, 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인자(63)	장수자(66)	정소영(91)	박찬주(91)	최영희(60)	오영란(01)	안희정(85)		
배동자(58)	양정자(63)	유승희(82)	케뮤니케이션디아학부	김숙희	정은자(61)		남연숙(86)		
임인진(58)	엄윤성(63)	최난옥(87)	이정민(63)		이금자(67)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체육대학	
김중자(60)	노영자(64)	박진희(88)	차경애(66)	자연과학대학	윤영애(68)	수학과	이숙진(85)	체육과	
양중자(60)	오경심(66)	방윤주(88)	조정자(67)	조인형(69)	윤연상(62)	윤연상(62)	곽은숙(86)	김정자(56)	
배옥자(61)	오경임(67)	윤숙경(92)	이인숙(85)	장상(62)	공과대학	박성희(86)	육완순(56)		
최정숙(62)	이영숙(68)	정은영(92)	송지은(01)	이정순(70)	컴퓨터공학과	한영희(86)	김해자(66)		
이춘지(63)	김순희(70)	조지윤(93)	사회학과	박복자(76)	이영옥(92)	이승은(89)	최춘자(66)		
신효재(66)	이종희(70)	철학과	장의순(62)	김경애(92)		서양화과	전성자(67)		
정준선(66)	백혜련(75)	이정혜(81)	최용소(65)	물리학과	음악대학	양경옥(63)	이정자(68)		
오원자(68)	황점순(77)	사학과	정행자(66)	정경옥(63)	기악과	최구자(65)	문규순(70)		
서경자(69)	이승희(80)	고광애(59)	최윤자(68)	김경자(68)	황경현(63)	이선희(67)	김은희(72)		
신언임(69)	임순희(82)	손경수(60)	유혜숙(69)	김순옥(74)	피아노과	백다임(86)	이영란(76)		
유원화(69)	박경애(83)	이은숙B(60)	이현숙(69)	이미경(86)	윤미재(65)	박형주(91)	이미나(81)		
정운현(69)	김주희(92)	김인숙(61)	최진선(70)	이숙희(87)	김희삼(76)	정승희(98)	무용학과		
전신애(75)	엄현진(93)	정민자(61)	신혜령(75)	한미경(88)	김태영(88)	조소과	이영숙(62)		
한순미(75)	오승우(00)	김재향(67)	김은미(81)	류승희(06)	이혜영	신경미(07)	안준자(68)		
백영자(76)	김민선(16)	서정임(68)	이재완(84)	화학과	성악과	서혜영(91)	김정수(70)		
박향연(78)	불어불문학과	정해자(72)	사회복지학과	강영옥(60)	심재명(57)	섬유예술과	윤덕경(76)		
고은주(90)	권남규(64)	윤혜신(80)	이정숙(61)	김정남(60)	주영희(57)	김인자(65)	이애현(76)		
전소영(19))	김송자(64)	조주은(86)	최태순(62)	김종은(60)	석정자(67)	변정현(67)	손경순(77)		
중어중문학과	율용범(64)		손경자(64)	박영민(60)	왕아자(67)	고순희(70)	한명옥(79)		
강운화(20))	조행자(64)	사회과학대학	최재명(66)	박영현(80)	황경자(경현)(68)	김연재(94)	이고은(89)		
영어영문학과	성명숙(66)	정치외교학과	김일숙(67)	김명화(64)	조경희(80)	주현선(02)	윤수미(91)		
이경희(42)	이초해(66)	신경희(71)	문선화(68)	양영자(65)	천인숙(82)	생활미술과	김자진(15)		
류수인(50)	이경해(67)	이명숙(71)	백청숙(68)	김동화(67)	석혜원(94)	문화자(67)	사회체육과		
천영애(55)	민해경(71)	서미영(72)	고순자(69)	김동화(67)	문화자(67)	고순희(70)			
강상봉(56)	장해경(73)	임수영(87)	장성순(72)	양수경(67)	조현주(20)	이민정(67)			
이인주(56)	정광자(73)	허윤선(89)	김혜순(84)	이인희(70)	작곡과	조창연(67)	김유련(97)		
김경숙(58)	김보경(81)	윤혜자	심리학과	민명홍(71)	강순미(71)	노경혜(69)	사법대학		
박재옥(60)	독어독문학과	행정학과	김태련(60)	심송영(73)	임진(72)	김미자(70)	교육학과		
최영희(60)	홍명자(66)	유샛별(07)	오봉림(61)	최희성(74)	김시애(75)	이주형(80)	백인숙(50)		
김옥선(61)	최옥주(67)	문화정보학과	원종복(62)	박세주(75)	신순아(85)	봉지희(85)	김애자(56)		
김옥원(61)	이금숙(69)	유에저(65)	송기정(69)	박명옥(81)	차희경(85)	조장은(00)	조병주(56)		
김정매(63)	최영민(71)	최선희(65)	장신호(69)	허신희(92)	송민경(02)	장식미술과	이연숙(57)		
문영해(63)	기독교학과	문영주(67)	안명옥(70)	김경선(95)	종교음악과	신승원(87)	권유봉(58)		
박봉숙(63)	이정자(66)	강은슬(80)	조상옥(76)	김명수(75)	오헤자(74)	신영선(88)	정재숙(58)		
					김명수(75)	도예과	김춘심(59)		

이양순(59)	박정복(57)	이현숙(64)	이영자(62)	이은희(90)	손영애	정순임(식영 85)
권혜숙(61)	홍승인(61)	배민자(66)	이인복(62)	조은진(94)	송현주(생교 97)	최희윤(불문 85)
유성교(61)	강봉기(63)	방희연(68)	김국자(63)	엄정윤(96)	오현아	유희연(영교 86)
장경희(61)	강혜운(63)	이규현(68)	김현혜(63)		윤수영	강진아(중문 94)
박덕순(63)	박옥연(65)	주문화(70)	차영화(63)	생활환경대학	이유경	
백영자(63)	양인숙(66)	지현숙(70)	황문희(63)	가정과	이종희	해외 지회
백형자(63)	최영자(66)	김혜진(71)	김기방(64)	김선영(59)	이한순	뉴욕(500달러)
이정옥(63)	성봉기(68)	유경화(74)	김송윤(64)	김혜자(80)	이현숙	532,150원
김광자(65)	윤여숙(69)	최금자(74)	김정경(64)	이일영(80)	전윤식	독일·오스트리아
윤순희(65)	김숙자(70)	이경자(75)	백정자(64)	박창순(62)	조경희	670,000원
김영희(68)	박영주(70)	장애숙(76)	이신자(64)	박영혜(63)	최종숙	멜버른
박영자(68)	이연희(75)	송선희(77)	이정혜(64)	이영예(63)	최종혜	100,000원
이재옥(68)	정은주(87)	이진숙(78)	정인자(64)	김영자(64)	한은미	베이징
전희정(68)	안정숙(88)	최금숙(79)	정태연(64)	김용자(64)		1,000,000원
김임순(70)	최연규(97)	피상순(84)	홍경자(64)	예경혜(64)	기타 이름미상	북가주(2020년, 2021년)
이인숙(70)	과학교육과		김명자(66)	나순구(65)	(11명)	1,156,300원
박국자(72)	이순자(67)	간호대학	김신자(66)	박부자(65)	국내 지회	세인트루이스
서성필(75)	한옥희(67)	간호학과	김화수(66)	박정자A(65)	대구 600,000원	2020년분 330,000원
윤다정(08)	한태화(68)	남상옥(62)	이기순(66)	조규화(66)	순천 630,000원	2021년분 330,000원
박정수	김(75)	권명자(71)	강원자(67)	박순자(67)	최경선(영문 62)	
유아교육과	조윤희(77)	김택숙(71)	김순애(67)	최민자(67)	강초래(가정 63)	이수자(가정 63)
유근희(61)	김영숙(83)	이광자(71)	김진희(67)	김성립(68)	조정자(국문 63)	한정자(교육 63)
최영란(61)	박근하(94)	변은경(83)	박숙현(67)	배계현(68)	김경인(동양 74)	최길자(화학 65)
김영주(71)	수학교육과	최혜은(98)	석귀덕(67)	임혜숙(68)	최정숙(영교 74)	정선주(성악 68)
문경숙(74)	문봉선(76)		황혜자(67)	가정관리학과	홍선란(교육 74)	이애희(간호 69)
김윤미(86)	융합보건과학과	약학대학	권봉미(68)	권광자(71)	유종희(사학 75)	정숙자(수학 66일)
유청옥(86)	신정례(67)	약학과	김경자(68)	변영애(71)	고명선(영문 76)	선재숙(의학 72)
김용희(89)	이주순(73)	최혜정(49)	원사덕(68)	박웅임(86)	박금희(물리 76)	남진우(간호 73)
박희경(89)	조남옥(74)	김순자(51)	노은숙(69)	의류직물학과	최영자(사회 77)	양혜자(심리 74)
방은정(91)	한도숙(75)	전에실(51)	신정희(69)	박윤정(55)	김명석(작곡 79)	최혜영(생미 86)
서유현(96)	오명신(78)	최귀佩(51)	오인덕(69)	설영자(75)	나연희(경영 79)	싱가포르
유하나(07)	임찬희(78)	최음전(55)	오정순(69)	유혜자(77)	황경숙(제육 79)	1,500,000원
류진희(19)	전혜선(82)	김원숙(57)	전경숙(69)	식품영양학과	서혜석(영문 81)	애틀랜타
초등교육과		김정순(57)	김재순(70)	박종오(58)	유숙영(법학 85)	2020년분 1,092,502원
윤순희(65)	법대·법전원	이정경(57)	변진희(70)	구소원(69)	윤지연(간호 85)	2021년분 1,164,224원
이행자(65)	법학과	전재선(57)	신옥희(70)	장선재(69)	고선영(국어교육 불어영문 86)	오타와
이지수(71)	이홍배(61)	문경희(58)	정점선(70)	편희숙(69)	최정순(커미부 87)	300,000원
신은옥(74)	민명자(65)	박영재(58)	이태율(71)	이영숙(70)	신경화(조소 88)	자카르타
조은순(75)	유희숙(65)	안준자(58)	체정열(71)	전정숙(71)	홍기은(교공 88)	226,000원
박소현(90)	홍경자(65)	신가균(59)	허령(73)	이경애(82)	김수진(경영 91)	클리블랜드
교육공학과	양정자(66)	윤혜숙(59)	우진향(75)	이윤경(90)	이유진(설계 95)	300,000원
반주원(76)	안정희(67)	진경순(59)	김경미(82)	정은경(90)	전주 750,000원	토론토
이정옥(81)	윤혜숙(70)	최안자(59)	장미숙(82)		차인자(영문 50)	(575캐나다달러)
박효숙(84)	박관순(72)	고순환(60)	지선옥(83)	대학원	유재신(생명 59)	534,418원
조원희(97)	조근배(77)	김보근(60)	김영은(85)	정희숙(73)	이순애(수학 59)	총콩
차은채(12)	정유경(89)	민경남(60)	박정완(85)	남기신(83)	김영원(피아노 61)	(33,300홍콩달러) 5,061,933원
류다현(15)	최정숙(90)	이종희(60)	진성미(88)	교육대학원	국혜원(사학 62)	(*이하 홍콩달러)
영어교육과	김구슬(93)	이주화(60)	김경자(89)	최경희(94)	조덕이(생명 64)	이명희(무용 68) 3,000
김영숙(69)		장현숙(60)	최은경(89)	배경희(94)	이주자(사교 67)	최명성(교공 76) 3,000
노선자(69)	경영대학	정태열(60)	박영희(94)		김영희(기독 69)	김정후(수학 81) 2,000
최종숙(72)	경영학과	최혜경(60)	손유영(02)	신학대학원	박숙희(교공 70)	임미도(관현 81) 200
조성실(76)	문수정(84)	한숙자(60)	권진현(05)	김경령(12)	안명숙(심리 70)	정도경(사복 81) 3,000
김희경(77)	서지희(85)	한영숙(60)	오상미(05)	학과·연도 미상	이전숙(의적 70)	최성희(정의 87) 500
우경화(80)	정혜선(89)	홍준자(60)	이지은(11)	장숙(교공 70)	한유미(융합보건 90) 5,000	
김은정(93)	박숙영(00)	고화영(61)	이내경(15)	박화윤(교육 72)	도주원(생미 92) 2,000	
이현정(94)	국제사무학과	김옥녀(61)	제약학과	김송자	이영례(의학 72)	오은정(법학 92) 1,000
강나연(02)	임은식(81)	배영진(61)	이순이(71)	김수희	기영석(국제사무 73)	이희연(관현 94) 2,000
박혜령(08)		온영기(61)	오용순(75)	김수희	손숙희(작곡 73)	조경진(영문 98) 200
장수진	의과대학	이광구(61)	최성화(76)	김재희	이현실(심리 73)	이계영(종을 01) 200
외국어교육과(불어전공)	의학과	이은실(61)	김혜경(78)	김해임	심창교(물리 75)	기정화(영문 04) 500
임선희(85)	박명숙(53)	정예경(61)	김영미(79)	박복자	오경안(법학 75)	노정아(경영 04) 500
채은미(85)	이종원(62)	정은자(61)	이정경(88)	박영숙	유순금(법학 77)	문주원(한음 10) 200
사회과교육과	우복희(63)	민영례(62)	이혜진(89)	사영교(01입학)	이은경(화학 79)	익명 10,000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4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혼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2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4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2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5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서비스 최초 상류층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집안까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결혼은 에스노블

두 대통령家의 성혼을 이루어 낸

23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노하우,

엄정한 심사와 신원인증을 거친 차별화된 회원 네트워크,

노블레스 결혼을 이끌어온 최고 성혼율

우산을 점점 더 기울이는 아빠의 마음처럼

예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하굣길,

우비도 압하고 장화도 준비했지만

아빠는 예린이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걱정인가 봅니다

아빠의 어깨가 다 젖는 것도 모르고

예린이를 위해 기울어지는

저 우산처럼

신한은

언제나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신한은행